

못 갚거나 돌려막거나 연체율 57개월來 최고

2월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51% 중소법인 0.14%p 오른 0.76% 카드론 잔액 40兆 육박 ‘역대급’ 가계 다중채무자 비중 23% 최대

국내 시중은행의 2월 연체율이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과 신용대출 등 신용 취약자의 연체율이 상승한 영향이다. 원리금을 갚기 버거운 차주들은 대출 문턱이 높아져 ‘급전 창구’인 카드론으로 몰렸다.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카드론으로 돌려막기에 나선 차주들이 많다는 의미로 채무 부담이 커져 가계 부채 실질화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전월 말(0.45%)보다 0.06%포인트(p) 상승한 0.51%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5월(0.5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관련기사 3면

기업과 가계대출 모두 연체율이 올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50%)과 비교해 0.09%p 뚝 0.59%를 기록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06%p 상승한 0.18%였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크게 올랐다. 이 기간 중소기업 연체율은 0.10%p 오른 0.70%, 중소기업 연체율은 0.62%에서 0.14%p 상승한 0.76%까지 치솟았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56%에서 0.05%p 상승한 0.61%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지만, 신용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소액으로 돈을 빌린 차주들이 제때 돈을 못 갚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주담대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2%p 오른 0.27%로 나타났다.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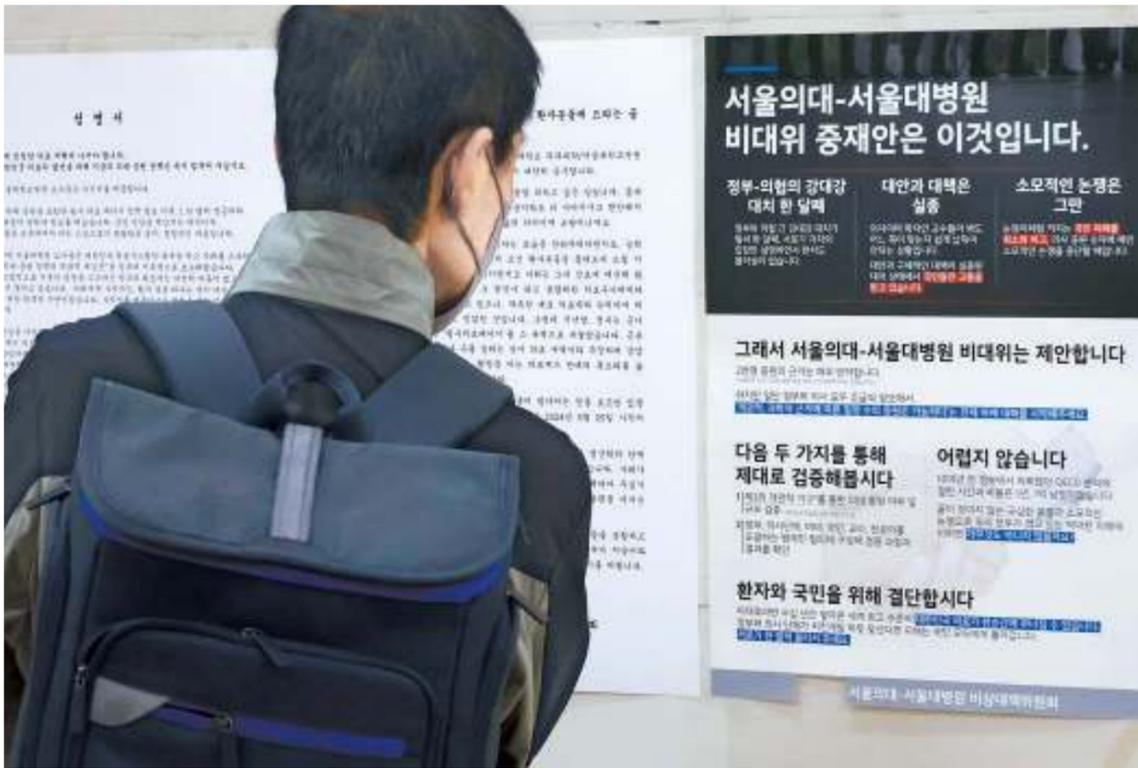
연체율은 0.84%로 전월 말(0.74%) 대비 0.10%p 상승했다. 전년 동월 기준으로는 주담대 연체율이 0.20%에서 0.07%p 상승에 그친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연체율은 0.64%에서 0.20%p 급증했다.

연체율이 급등하자 금융사들은 일제히 대출 문턱을 높였고 돈을 빌리기 힘들어진 차주들은 카드론으로 ‘급한 불’을 껐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9조 4821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전월(39조 4744억 원) 대비 77억 원 증가한 규모다. 중·저신용자 대출이 카드론에 집중되자 금리까지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달 말 기준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의 평균 카드론 금리는 연 14.44%에 달한다. 지난해 7~9월 연 13% 후반대였던 것에서 연 14% 중반까지 오른 것이다.

원리금 감당이 버거운 차주들은 돌려막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50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2만 명이 늘어나 역대 최대다. 전체 가계대출자에서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2.7%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다중채무자인 개인 사업자의 수도 늘었다. 양 의원실이 나이스 신용평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중 다중채무자 수는 173만 1283명으로, 전년 동기(168만 1164명) 대비 5만 119명(2.98%) 증가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는 크게 줄지 않고 있고, 채무자들의 변제능력은 떨어지고 있다”며 “문제는 돈을 빌려준 금융사도 힘들다는 것으로 다중채무자 증가, 연체율 상승 현상이 지속되면 금융사의 부실채권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유하영 기자 hana@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진료 전면중단”



주요 대학 병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주 1회 셋다운(휴진)’에 들어간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주 1회 셋다운하는 대학병원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총회를 열고 30일 휴진하기로 결의했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전날 총회에서 내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서울 중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의 중재안이 담긴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비대위 수뇌부, 내달 1일자로 사직” 의사 수 과학적 추계 차원 논문 공모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정(醫政) 간 갈등이 장기화하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30일 중증·응급·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며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저하 속에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4월 30일 하루 동안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4·21면

이날 방 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서울의대 비대위 수뇌부 4명이 5월 1일 자로 사직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 위원장은 “네 사람은 다 필수의료에 종사하고 있다. 이번 사태 최전선에서 정부에 투쟁하게 될 줄 몰랐다. 정부가 지금까지 정책을 밀어붙이면 대한민국 의료는 5월에 100% 붕괴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교수들의 사직 발표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사직 규모와 관련해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박민수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사직서는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것이 많지 않다. 그리고 이것을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화와 설득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의대 증원 관련 과학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

적 추계 연구 출판 논문 공모에 나선다. 비대위는 해당 논문 연구를 위해 8~12개월이 걸리는 만큼, 현재의 의대 증원은 멈추고 2026학년도에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방 위원장은 “연구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겠지만, 현재의 혼란으로 인한 손실과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미래를 생각하면 긴 기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통령실의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입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택우 비대위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에 전공의와 의대생을 배제한 대화는 의미 없다. 이를 ‘대화 거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며칠이 문제 해결의 시간이 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다.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SK하이닉스, 청주에 D램 공장 건설… HBM 수요 선제대응

5.3兆 투입… 내년 11월 양산 돌입 차세대 D램 생산능력 확장 가속화

SK하이닉스가 급증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에 선제 대응해 AI 인프라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D램 생산능력(캐파) 확장에 나선다.

SK하이닉스는 24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충북 청주시에 건설할 신규 팹(Fab) M15X를 D램 생산기지로 결정하고 팹 건설에 약 5조 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

다. 이달 말부터 팹 건설 공사에 본격 나서 내년 11월 준공 후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장비 투자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장기적으로는 M15X에 총 2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집행해 생산 기반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글로벌 리더인 당사는 회사 경쟁력의 근간인 국내 생산기지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AI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반도체 업계는 D램 시장이 중장기적인 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연평균 60% 이상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HBM과 함께 서버 비용 고효율 DDR5 모듈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D램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회사는 전망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HBM은 일반 D램 제품과 동일한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한 캐파가 최소 2배 이상 요구되는 만큼 SK하이닉스는 D램 캐파를 늘리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2027년 상반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용인 클러스터)의 첫 번째 팹 준공 전에 청주 M15X에서 신규 D램을 생산하기로 했다. M15X는 실리콘

관통전극(TSV) 캐파 확장 중인 M15와 인접해 있어 HBM 생산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고려됐다. M15X와 함께 SK하이닉스는 약 120조 원이 투입되는 용인 클러스터 등 계획된 국내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용인 클러스터의 부지 조성 공정률은 약 26%다. 목표 대비 3%포인트(p) 빠르게 공사가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의 생산시설이 들 어설 부지에 대한 보상절차와 문화재 조사는 모두 완료됐고 전력과 우수, 도로 등 인프라 조성 역시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회사는 용인 첫 번째 팹을 내년 3월



SK하이닉스 신규팹(Fab) M15X 건설 조감도. 사진제공 SK하이닉스

작공해 2027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 박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M15X는 전 세계에 AI 메모리를 공급하는 핵심 시설로 거듭나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투자가 회사를 넘어 국가 경제의 미래에 보탬이 되는 큰 발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한치 앞 모르는 '탄소장벽'... 국내기업, 방망이 짧게 잡아야

리월드포럼 2024

탈탄소 이유로 거세진 보호무역 선진국, 기후·통상 법령 우후죽순 장기적 관점보다 단기대응 필요 건물 부문 탄소저감 필요' 지적도

전 세계적 탈탄소 흐름과 맞물려 각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기후·통상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 소장은 24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RE100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을 주제로 열린 리월드포럼 2024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제 통상이 협력 대신 파편화로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기후위기가 핵심 의제로 떠오르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기후'와 '통상 정



24일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리월드포럼 2024'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SDX재단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포럼에선 RE100이 다가오는 현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부족한 우리나라 기업들에 필요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책'을 연계해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일례로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해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을 100% 재생 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는 국제캠페인

'RE100'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수도 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친환경차 세액공제)과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보조금 지급) 등도 추진 및 시행되고 있다. 김소장은 이같은 글로벌 통상 정책의 추세가 점차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후변화는 국제협력이 필요한 어젠다"라면서도 "그런데 관련 국제협력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관세 장벽의 증가, 보호무역주의 등을 예로 들며 "(해외 통상 정책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공급망의 탈세계화 흐름이 있다"며 "국내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이 아닌 '단기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장은 "경기가 둔화되고 2~3년 사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우선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하위 법령과 규칙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 규정을 보면서 기업 수출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보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예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탄소배출량을 공장 단위가 아닌 제품 단위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환경점수가 8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돼야 한다"며 "환경점수는 전기차 부품인 철강과 배터

리의 탄소발자국,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 등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기업 운영에 있어 건물 부문 탄소저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형원준 리월드포럼 공동대표는 "서울 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62.1%가 건물에서 발생한다"며 "각 산업이 탄소감축에 노력하면서도 건물 부문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형 공동대표는 "일례로 전국에 1만5000여 개의 편의점이 있는데, 이를 원격관리 체계로 바꾸면 간단한 센서로 에너지 모니터링과 원격 관리가 가능하다"며 "그런 식으로 1년 만에 (에너지 비용이) 10% 절감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필요성을 역설했다. 형 공동대표는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위해선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원격자동제어와 설비 에너지 등을 혼합한 친환경 5차 산업혁명 플랫폼을 제시했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K-디스카운트 해소 전문팀 필요" 금융위, 해체된 회계팀 부활 시동

올 초 감사원 지적에 사라졌지만 회계 투명성으로 해외투자 확보 행안부와 7월 재구성 협의 나서

금융위원회가 7월을 목표로 공정시장과 회계팀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측면에서 팀 부활 자체에 머물러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처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력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금융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7월 회계팀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의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행안부와 금융위가 함께 회계팀 부활을 논의 중인 게 맞다"면서 "회계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조직 부활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계획대로라면 1월 해체된 비공식 회계팀이 6개월 만에 공식 조직으로 탄생하는 셈이다.

1월에 회계팀 조직이 해체된 것은 감사원의 지적 때문이었다. 행안부에서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받지 못한 기업회계담당부서를 5년 이

상 운영했다는 게 이유다. 조직도 유명무실했다. 당시 서기관 1명이 팀장을 맡았고 사무관 2명, 주무관 1명으로 구성돼 운영됐다.

이에 금융위와 자본시장 안팎에서는 회계를 정책 차원에서 고민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만 작년 말 기준 4만1212개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직속으로 42명 규모의 수석회계사실을 두고 있다.

자본시장한관계자는 "국내외 투자자가 회계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는 측면이 있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회계팀 부활과 인력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행안부의 경우 지방회계 등을 담당하기 위해 20명이 넘는 회계제도 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월 감사원도 재정 누수 감시 기능을 강화 하겠다고 30명 규모로 3개 과로 구성된 국장급 단위인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을 신설했다. 금융감독원에서 감독 업무를 하는 인력은 전문심의위원 아래로 100명 가량 된다.

박상민 기자 si2020@

부동산PF·다중채무 위험 수위... 2금융권 부실 독 터지나

부동산PF 연체율 증권사 14%
저축은행 7%·여전사 5% 육박
부실건설사 정리멘 타격 불가피
서민은 빛 내서 빛 막은지 오래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38%

금융권의 연체율에 비상이 걸린 것은 고물가와 치솟는 금리로 이자 갚기도 버거운 차주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가계와 기업 모두 상환 여력이 급격히 떨어진 영향이 크다. 취약차주의 부실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난 상황이다. 문제는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부동산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까지 덮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에 나선 경우 건설사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고 2금융권으로 충격이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3.73%에 달한다. 전 금융권에서 가장 높다. 전년 10.38% 대비 3.35%포인트(p), 2020년 3.37%보다 10.36%p 급등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의 부동산 PF 평균 연체율도 각각 6.90%, 4.65%다. 같은 기간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2.70%인 점을 고려하면 2금융권의 PF 연체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 PF 연체율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전체 연체율도 동반 상승 중이다. 지난해 국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카드) 연체율은 1.63%로, 1년 전보다 0.42%p 올랐다. 2014년 1.69%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카드 연체율은 카드대금·할부·리빙·카드론·신용대출 등을 1개월 이상 밀린 경우를 반영한다.

이 기간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6.55%.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4%p나 뛰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5.8%p)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말 연체율이 7~8%까지 뛰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주부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현장점검에 나선 배경이다. 새마을금고 역시 최근 연체율이 다시 오른 상태다. 지난해 말 5.07%였던 연체율이 올해 1월 6%, 2월 7%대까지 반등했다. PF와 유사한 성격의 관리형토지신탁이나 공동대출 부실화가 연체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힌다.

보험사도 비슷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은 273조2000억 원으로 제2금융업권 중 상호금융 다음으로 큰 수준이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를 넘는 규모다. 보험업권의 대출채권이 전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25%에 달한다.

카드 빚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경우 시중은행 대비 고금리 대출 상품으로 대부분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들이 빌린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서민경제의 부실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2금융권 연체율이 높아지면 신규대출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실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여신잔액은 2월 말 기준 102조3301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 연속 감소 추세로 2021년 12월(100조5883억 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제도권 금융에서 돈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고금리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속 3군데 이상에서 빚을 내 빚을 갚는 다중채무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배경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다중채무자 평균 대출잔액은 상호금융이 75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보험사가 약 43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 5100만 원, 저축은행 2000만 원, 캐피탈사 1600만 원, 카드사 1000만 원 등의 순이다. 2금

용권의 다중채무자 비중도 높은 상태다. 저축은행(38.3%), 카드사(33.7%), 보험사(32.1%)는 30%를 넘는 수준이다. 캐피탈(28.7%)과 상호금융(14.8%), 은행(10.4%)보다 훨씬 높다.

가계대출 차주 중 저소득층(소득 1~2분위)이 차지하는 비중도 보험사가 40.2%에 달하고 캐피탈 38.5%, 상호금융 36.5%, 은행 30.7% 순이다. 고금리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저소득층 차주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화 가능성도 높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현재 연체율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F 부실 규모가 111조 원에 달한다는 외신 보도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금융권의 평균 부동산 PF 연체율은 평균 2% 선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다음달 중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뒤 정상화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2금융권 연체 급증 (단위: %, 2023년 12월말 기준)



2금융권 부동산PF 연체율 (단위: %, 2023년 12월말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5.66%로 꿈틀

변동금리도 상승 전환 가능성 커
빚 못갚는 고위험 세대 급증 전망

저금리에 돈을 빌린 대출자들은 갈수록 높아지는 대출 금리 부담에 불안감이 커지는 형국이다. 특히 제로금리 시대에 무리한 대출로 내 집을 마련했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이나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에 돈을 끌어다 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꿈틀대고 있어 부채 상황이 어려운 고위험 세대가 급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38~5.66%로 집계됐다. 이는 두 달 전 연 3.28~5.47%(2월 28일 기준) 상·하단 모두 0.1%포인트(p) 이상 뛴 수치다. 주담대는 통상 수익 원을 대출해 소폭의 이자율

변동에도 월 수십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주들의 체감은 클 수밖에 없다.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준거 금리로 활용되는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가 상승해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일 기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3.914%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 3.57%였던 금리는 4%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이날 기준 3.82~6.04%로 고정형보다는 안정세를 보였다. 변동금리를 산정하는 지표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넉 달 연속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현재 전체 대출 중 고정형 주담대의 대출 비중은 65.6%에 달하는 반면 변동형은 34.4%에 그친다. 변동형 역시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코픽스는 전달의 자금조달비용이 반영돼 후행한다. 주담대 고정형보다 변동형이 늦게 움직이는 것. 결국 변동금리 역시 추후 보험이나 상승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선영 기자 moon@

Shinhan

신한투자증권 IRP는 관리 수수료 없이 한평생 함께

모바일 계좌도 지점 계좌도 모두
자산·운용관리 수수료가 0원이니
퇴직연금 평생 Save!
(단, 펀드 보수 등 상품 자체 비용 별도 발생)

IRP 계좌내 손입금 시
최대 3만원 상품권 증정 이벤트 진행 중
(조건 충족 시, ~6/30, 잔고 유지 1개월 필수)

* 이벤트 유의사항
• 이벤트 참여 및 혜택 수혜를 위해 마케팅 이용 (수집, 이용, 제공, 수신) 동의는 필수이며, 경품지급 시점까지 마케팅 정보 수신 (SMS, Push, 주간 8~21시)에 동의 체크하신 후 혜택 수혜 시까지 유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 경품 발송을 위한 수탁업체에 고객님의 정보 (휴대폰번호)가 제공되고, 경품 발송/배송 후에는 개인 정보가 폐기됩니다. (수탁업체: KT유플러스, 제공범위: 핸드폰 번호 등. 발송 후 규정에 따라 폐기)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에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연금계좌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펀드 보수 등 상품별 자체 비용 및 집합투자증권 등 거래 시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4-0650호 (2024-04-08 ~ 2024-06-30) * 안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1344호 (2024-04-15 ~ 2024-06-30)

신한투자증권

일상이 '풍당' 재미가 '둥둥'... 한강 위 호텔·오피스 띄운다



서울시 수상공간 '리버시티 서울' 조성

※ 출처: 서울시

한강 일상공간 재탄생

한강 수위가 올라가도 안전한 수상 오피스 공공기어·민관 협력 추진, 수상 호텔 여의도 물빛무대 주변 조성

- 20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타당성 조사
- 2025년 민간 사업자 선정·2026년 착공 목표
- 수상 푸드존 한강 경치를 보며 세계 음식 경험
- 한강 리버시티 한강 대중교통·관광수단 운영

여가의 중심 한강 조성

- 케이블 수상스키장 신설
- 독섬 윈드서핑장 시민 개방
- 축제 활성화 보트 페어리드, 수상 영화관 등 한강 대표 축제 한강 페스티벌과 연계



-한강 수상활성화 기대 경제 효과 연간 약 9256억원·일자리 창출 6800여개 예상
-총 예산 약 5501억원 투입(민간 3135억원, 재정 2366억원)

서울시가 2030년까지 연간 시민 1000만 명이 이용하는 '한강 수상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수상오피스'에서 회사생활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수상호텔'·'수상푸드존'을 조성해 '리버시티 서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연 9260억 원의 생산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계획 발표는 시민들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수상'에 초점을 맞췄다"며 "한강안에 리버시티를 비롯해 각종 형태의 선박을 띄워 수상호텔, 수상오피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수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3월 발표한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후속편으로, 수상분

야 정책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을 담고 있다.

우선 한강이 특별한 날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주요 무대가 되는 '일상의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한강 수위가 올라가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 위에 떠있는 부유식 시설로 '수상호텔'과 '수상오피스'를 조성한다. 한강의 경치를 보며 전 세계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수상푸드존'도 만들어진다.

올해 10월부터 쾌적하고 편리한 수상이동의 장점을 활용한 대중교통·관광 수단인 '한강 리버시티'를 운영한다. 이에 기존 수상택시는 폐지하고 소규모의 수요 맞춤형 선박을 도입해 관광을 활성화한다. 한강 야경·석양 투어, 선상 식사·행사 등 다양한 관광·유람 코스를 운영할 계획

서울시 '한강 수상 활성화 계획'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후속 2030년까지 호텔·푸드존 조성 보트 페어리드·수상스키장 운영 일자리 등 연 9260억 경제효과

이다.

일상에 지친 시민이 다양한 여가 활동으로 힐링할 수 있도록 한강을 '여가의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초보자도 참여 가능한 레저시설인 '케이블 수상스키장'을 운영하고, 일부단체 회원만 이용하던 '독섬 윈드서핑장'을 모든 시민에게 개방한다. 한강에 수상 복합인프라를 구축해 도시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의 거점'으로 만든다. 한강 내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을 총 1000선석으로 늘리고, 신규로 잠실에 도심형 마arina를 짓는다. 여의도에 선착장을 조성해 여의도~경인아라뱃길을 활성화하고, 향후 여의도에서 승선해 한강을 따라 서해까지 갈 수 있는 서울항을 2026년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한강 생태계 환경과 관련해) 2007년 한강 르네상스 시행 이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 한강의 수상 생태계는 친환경적으로 매우 좋아졌다"며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개발'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을 통해 서울시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연간 6445억 원의 생산 파급 효과, 연간 2811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 등 연간 9256억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6800여 명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 하반기에 여의도~경인아라뱃길 선착장 조성, 한강 리버시티 운영, 2026년에는 서울항을 비롯해 수상푸드존, 잠실마리나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한강 수상을 시민 일상생활의 공간, 여가의 중심지, 성장의 거점으로 만들어 2030년까지 1000만 명 한강 수상 이용 시대를 열고 증가하는 수상레저 수요 충족은 물론, 많은 일자리와 경제효과를 창출해 서울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재빈 기자 chaebi@

“집값 오를 것”... 10개월만에 상승 전망폭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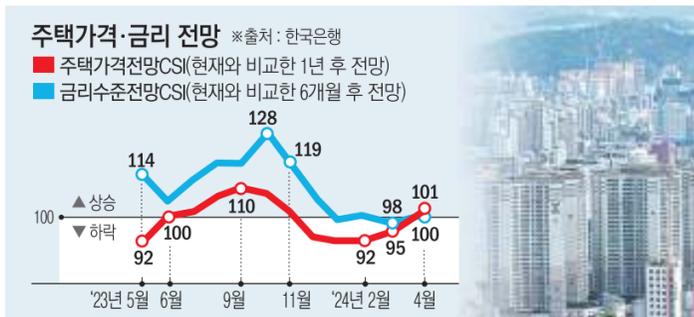
한은, 주택가격전망CSI

아파트 하락세 둔화·거래량 상승 주택 전망 개선... 6p 오른 '101'

주택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4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월 대비 6포인트(p) 오른 101로 집계됐다. 작년 6월 8포인트 오른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주택가격전망은 1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소비자 전망을 나타내는 지수로, 100보다 높으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 수가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 수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지난해 11월 102에서 12월 93으로 폭 떨어졌 뒤 올해 1월과 2월 각 92, 3월 95 등으로 6달째 100선을 밑돌았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주택 가격전망CSI 지수가 올라간 것은 아파트매매가격 하락세 둔화 때문"이라며 "거래량도 소폭으로나마 회복되는 조짐이 있다는 뉴스가 있어 소비자들이 상승 전망 응답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도 아직 높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 미분양,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게 있어서 높은 상승 요인으로 보기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현재 소비자심리를 '보합' 수준으로 진단했다. 4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과 동일했다.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현재생활형편CSI(89)는 전월과 동일하고, 생활형편전망CSI(94)는 전월 대비 1p 상승했다. 가계 수입전망CSI(99)는 전월과 동일하고 소비지출전망CSI(110)는 전월 대비 1p 하락했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는 현재경기판단CSI(68)는 전월과 동일하고, 향후경기전망CSI(81)는 전월 대비 1p 상승했다. 취업기회전망CSI(85)는 전월 대비 1p 올랐다.

황 팀장은 "물가가 여전히 아직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고, 금리도 높아 소비지출 여력이 제한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 크게 나아지고 있는 것은 연거푸는 느낌"이라며 "물론 (기준치) 100을 넘었으나 전체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장기평균에 비해서는 높다고 할 수 있지만 크게 좋아졌다기보다 보합 수준, 횡보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금리수준전망CSI는 전월보다 2p 상승한 100으로 나타났다. 전월에 2p 하락하며 98을 기록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오른 것이다. 황 팀장은 "기준금리 동결 및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예상치 상회 등에 따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 등으로 시장금리가 소폭 반등하며 금리수준전망CSI도 상승했다"고 말했다.

물가인식(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은 전월과 같은 3.8%로,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전월보다 0.1%p 하락한 3.1%로 각각 집계됐다. 황 팀장은 "(기대인플레이션율) 향후 1년을 응답하는 것"이라며 "농산물이 3월에 과일, 채소류 중심으로 위낙 올랐었는데 정부에서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등 정책을 시행해 대형마트를 가보면 체감으로 할 수 있는 몇몇 품목들은 아주 높았던 수준보다는 내려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자율운항선박 성능검증시스템 세계 첫 로이드 선급 인증 획득

韓 선박해양플랜트연구 자체개발 K-조선업 글로벌 파급력 기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선박 검증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영국 로이드선급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하며 가치를 인정받았다. 로이드선급협회의 조선 규칙이 세계 조선계 기준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는 자체 개발한 '가상환경 기반 자율운항선박 성능검증 기술'이 영국 로이드선급으로부터 디지털트윈레디(Digital Twin Ready)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로이드선급은 선박의 건조 규칙을 제정하고 선박 건조 시 감독관을 전 세계에 파견하는 등 선박의 등급 판정과 선명록을 발행하는 비영리 협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세계적인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움직임에 따라 2020년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 통합사업단을 발족하고,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KASS프로젝트)'을 통해 기술개발과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실증 기반 조성을 추진했다. 프로젝트의 하나로 KRISO는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자율운항시험선 '해양누리호'를 건조·운영 중이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기술은 KRISO가 주관하고 세이프텍리서치, 지노스와 공동으로 개발해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와 해양누리호에 설치, 운용되는 시

뮬레이션 기반 자율운항테스트시스템(S-TAS·Simulation based Test for Autonomous Ships)과 가상데이터생성시스템(VDGS·Virtual Data Generation System)이다. S-TAS는 실제 선박이 운항하는 환경과 선박 내 기관 등의 작동을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모사해 자율운항선박 탑재 시스템들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실제 해상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시험 조건의 부여와 재연이 가능하다. VDGS는 해상 시험 수행 시 통항 조건 부여에 관련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실험실 시험 시 대상 시스템에 가상의 해상 선박과 장애물 등의 조건을 제공, 수많은 통항 시나리오를 모사하고,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게 한다.

로이드선급의 디지털트윈레디 인증은 디지털트윈 기반 기술에 대한 적합성을 승인하는 것이다. S-TAS와 VDGS에 대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및 개발 역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 두 시스템이 자율운항선박에 설치되는 다양한 시스템의 성능,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준비가 됐음을 로이드선급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

KRISO 관계자는 "S-TAS와 VDGS를 활용해 항만 등 복잡한 조건에서의 성능 실증을 수행, 자율운항선박의 핵심 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기술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 조선-해운 산업계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엄마·아빠>

“아이 등하원 수월하게 해줬으면...” 엄마의 바람을 현실로

〈글 쓰는 순서〉

- ① 법인세·소득세 파격적 감면
- ② **유연근무제 의무 도입해야**
- ③ 남은 동료 확실한 보상·배려

“1시간 늦게 출근하고 좀 일찍 퇴근해 아이의 등하원을 정말 수월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근무시간 단축제 덕분이었죠. 하지만 아이 나이가 5세 이전

24개월 동안만 가능했어요. 그 이후엔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했는데 출퇴근 시간만 조정해도 육아에 엄청 도움이 됐죠.”

부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김모(33·남) 씨는 “일반적인 사기업에 다니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확실히 공무원들이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며 “시차출퇴근 제도 같은 건 사기업에서도 의무화해서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고 출퇴근시간을 자율 조정해 활용하도록 하면 양육 부담이 확실히 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1만 9362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58명(3.3%) 줄었다.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역대 최저치다.

아기 울음소리를 갈수록 듣기 어려워지는 초저출산이 심각해지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낳아도 키울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맞벌이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기관에 아이를 맡기기 수월하게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만 잘 시행해도 육아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나아가 차제에 유연근무제를 모든 기업에서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돌봄 경우 주중 낮에 79.7%가 돌봄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한다. 돌봄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엄마(80.5%), 외조부모(7.2%), 친조부모(3.4%) 순이다.

출산 적령기에 있는 30대가 가장 원하는 가족 지원서비스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22.2%)으로 조사됐다.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25.2%), ‘인식 확산’(17.1%), ‘유연근무제 확산’(15.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돌봄서비스 필요시간대는 오후 5~6시(61.5%), 오후 4~5시(54.4%), 오후 6~7시(36.5%) 순으로 수요가 높았다.

영유아 돌봄 가정 80%가 주중 낮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공무원·대기업 근무시간 단축제 이용하지만 중소기업은 어려워 출퇴근시간 자율조정 의무화면 양육부담 확실히 줄어줄 것 여가부 “아이돌보미 확대... 손실 아닌 미래투자 인식해야”

여가부는 돌봄서비스 수요가 높아지면서 맞벌이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 수를 8만5000가구에서 11만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다. 최소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중앙정부·지자체·기업 협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현재 395개소에서 올해 말 435개소로 확대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올해 355개소 예정)도 운영해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이돌봄 수요와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해서 직장에 다니는 부모에 대한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가 필수적이다. 유연근무제란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조정해 일·가정 양립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 유출을 막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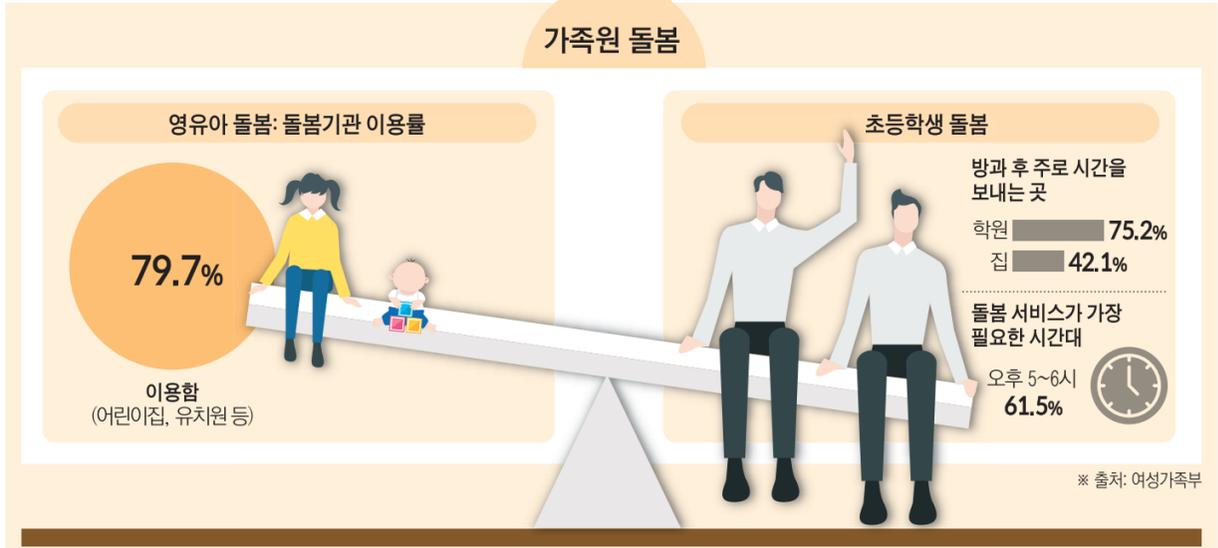
하지만 이 같은 제도는 일부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집중돼 있다. 보다 많은 직장인이 누릴 수 있도록 사기업까지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인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를 조화롭게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그는 “길게 휴직하면 경력 단절이 된다. 예를 들어 보통 직장에서 2~3년 동안 육아휴직을 간다고 치면, 1년은 유급이고, 2년은 무급인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3년을 갔다 오면 일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육아휴직 기간은 자동적으로 주퇴근 기간은 짧게 하고, 육아기에는 시차 출퇴근,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을 확대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런 가운데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돌봄 전문가를 양육함과 동시에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취지다.

여가부 관계자는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유사 자격자 중 활동을 하지 않는 인력이 단축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제도 개선(‘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과 국민 모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이나 근로 공백, 양육 부담을 손실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고 직원과 동료의 자녀 양육에 동참한다면 저출산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석주 기자 ssp@·정유정 기자 oiljung@



“유연근무제·육아휴직... 직원 효용감 가장 커”

가족친화인증기업 복지는...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복지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손해일 정도로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육아’의 저자이자 변호사로 일하는 정지우 작가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알아서 잘할 텐데, 중소기업 중사자가 대부분이다. 육아휴직자가 없는 기업이 훨씬 손해가 날 정도로 법인세 감면이나 국가 주주 사업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본지가 대학내일, 롯데백화점, 산호수출포장, 한미글로벌 등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법무법인(유) 지평, 포스코 등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을 상대로 직원들의 효용감이 가장 큰 출산·육아 관련 복지 제도를 물은 결과, 대부분 기업에서 유연근무제·육아휴직 의무화를 꼽았다.

한미글로벌은 출산 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결해 7개월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또 직원들은 육아기에 최대 3년간 재택근무를 이용할 수 있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자녀돌봄 휴가 1주 혹은 4주간 2시간 단축 근무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한미글로벌 관계자는 “향후 10년 내 사내 출산율 2명을 목표로 다양한 제도를 보완 중”이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혼과 저출산 원인을 제거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 한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2012년부터 여성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당시 유급휴가 1년이었는데, 2017년부터 무급 1년 포함 총 2년까지 확대됐다. 남성은 자동 육아휴직 30일(유급)을 사용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여성들이 눈치 보

지 않고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또한 2017년부터 남성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는 등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내일 역시 육아휴직, 재택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시차출퇴근제 등을 통해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1년 유급, 1년 무급으로 총 2년을 활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1년 쓰고, 육아기 근로 단축(1년)을 선택해 활용할 수도 있다.

대학내일에 근무 중인 인재성장팀 김이슬

한미글로벌·롯데백 등 육아휴직 도입 중소 산호수출포장도 일·가정 양립 노력 생계 시급한 이들에 유연근무제 우선 전문가 “단축근무제부터 우선 시행을”

주요 가족친화기업의 출산·육아 지원 제도

기업명	출산·육아 지원 제도
대학내일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제한없음) -난임휴가(5일,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유급)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준(만 12세까지) 기간 확대
롯데백화점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도 -유치원 입학 기간 적용 위한 ‘우리 아이 첫걸음 휴가’ -난임 시술비 지원(배우자 포함) 및 휴직 -남성 직원 대상 ‘에비아빠 태아검진 휴가’ -출산지원금 100만 원
법무법인(유) 지평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한 경우 수당 100만원 지원 -육아 및 학업 등 개인 사정 고려한 유연근무제 시행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 자녀 대학 진학 시 400만원 지원 -팀원 평가 부재 시 남은 직원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
산호수출포장	-출산 휴가(90일 중 60일 유급) 및 경조금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유급) -난임치료 휴가 -자녀 돌봄 단축근무(1시간) -가정의 날 정식 퇴근제
포스코	-격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 -임신기 직원 유연근무제 -출산장려금(600만 원) -난임치료비(최대 1000만 원) -임신기·육아기 직원 자녀당 최대 2년간 하루 최대 4시간의 단축근무
한미글로벌	-출산지원금(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1000만 원) -육아기 부모 재택근무제도 도입(최대 3년) -자녀수와 상관없이 보육비 및 대학교 학자금 지원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 자녀돌봄 휴가 1주(유급) or 4주간 2시간 단축 근무 중 선택

책임은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첫째 아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식월 1년 5개월 그리고 2021년 둘째 아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식월 1년 5개월 총 육아 관련해서 약 3년의 시간 동안 육아휴직과 복지 제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책임은 유난히 입덧이 심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 출산 직전까지 편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었다. 그는 “혜택을 받은 만큼 또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동기가 생겼다”며 “아이를 키우며 다양하게 확장되는 시각들을 업무적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에 있는 산호수출포장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포함해 자녀 돌봄 단축근무(1시간) 등을 시행한 노력을 인정

받아 지난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산호수출포장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으로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여러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육아휴직·유연근무제 최우선” =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겐 육아휴직보다는 근무시간 조정 등 유연근무제를 통해 아이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추진지원단장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대기업,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문화가 잘 정착해가는 것 같은데 소규모 기업이나 특히 자영업 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누리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마음 놓고 육아를 할 수 있게 하려면 비용적 지원보다는 시간적 지원이 좀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가령 오후에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시간, 즉 오후 4~5시라도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축근무제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일찍 출근하고 퇴근하는 유연근무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며 “오후 3~4시만 돼도 다 퇴근하고,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후에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육아휴직 의무화를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가령 구로 산업단지 등에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다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만 하는데, 의무적·원칙적으로 다 가게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시범 사업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석주 기자 ssp@
정유정 기자 oiljung@

“美주식·부동산·토큰증권… 현명한 투자로 자산관리를”

미술품 조각투자·토큰증권 주목
미래 산업 열쇠 AI 투자전략 제시
부동산 투자 대상·방식 선별해야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타워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저성장과 고금리 기조로 안갯속 시장 전망이 계속되는 경제 상황에서 다양한 투자법과 확실한 투자처를 소개했다. 이날 현장에는 1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몰려 최근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투자처를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주요 강연자로는 김형준 테사 대표와 장의성 미래에셋증권 반포역 WM 지점장,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 등 각 분야 대표 전문가들이 줄줄이 나섰다.



장의성 미래에셋증권 반포역 WM 지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FK타워 컨퍼런스 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에서 '글로벌 시세에 투자하자'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본지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조각투자, 주식·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용한 투자 해법을 제시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첫 번째 강연을 맡은 김형준 대표는 '미술품 조각 투자와 토큰증권발행(STO)'을 주제로 강단에 섰다. 테사는 블루칩 아트테크 플랫폼 기업으로 우량 미술품 조각투자 선두 기업으로 꼽힌다. 김 대표는 "자산 가치가 분명한 우량주로 자산 가치가 분명하고

앞으로 제도권에 편입된 조각투자 관련 증권이 토큰 증권 형태로 발행됨으로써 새 유통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장의성 지점장은 '미래 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인공지능(AI)'을 핵심 내용으로 미국 주식 중

AI와 반도체 등 관련 섹터를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장 지점장은 "PC, 인터넷, 모바일에 이어 AI 시대가 지난해부터 열렸다"며 "글로벌 선두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부동산 투자 분야에선 김학렬 소장과 이광수 대표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진단과 입지' 등 부동산 시장 전망을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김 소장은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투자 대상과 투자 방식을 선별해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비(非)랜드마크 아파트 투자를 고려한다면 기존 아파트와의 가격 격차를 확인하고, 저평가 매물에 투자하는 방식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수익형 부동산은 일자리가 많은 곳과 교통망이 우수한 곳을 선별하고 월세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이대표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부침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매수 시점이 올해 투자 수익률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대표는 "매수 유효 수요는 자꾸 줄어들 것이므로 시장이 어려울 때는 매수 시점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S&P 2.6배 오를때 블루칩 미술품 7배 상승”

김형준 테사 대표

“블루칩 미술품은 자산적 가치가 분명한 우량주입니다. 누구나 고가의 블루칩 미술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블루칩 아트테크 플랫폼 테사(TESSA)의 김형준(사진) 대표는 “블루칩 미술품은 대중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한 '명작' 개념과 달리, 미술품의 자산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설정된 다양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작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부터 테사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시작, '투자 시대'에 블루칩 미술품이 투자 자산 중에서 독보적인 가치를 가졌다는 믿음을 드러냈다.

테사는 그동안 마르쿠 사갈, 에드가 드가, 데이비드 호크니, 뱅크시, 루치오 폰타나 등 작품 50개를 공모, 누적 331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뤄냈다.

김대표는 "1년에 100회 이상 경매가 일어나는 작가여야 하고 연평균 거래금액은 100억 달러 이상, 작품 가격도 200위 안에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술품 가격지수를 보여주는 아트 프라이스(Artprice)에 따르면 최근 22년간 S&P 500 지수가 2.6배 상승하는 동안 블루칩 미술품은 7배 올랐다. 블루칩 미술품이 S&P 대비 20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둔 셈이다. 테사도 2년간 연간 성장률 1404%를 기록 중이다.

김대표는 "제도권에 편입된 조각투자에 대한 증권들은 STO를 통해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됨으로써 새로운 유통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AI 시대 진입… 글로벌 기업 장기투자 바람직”

장의성 미래에셋증권 반포역 WM 지점장

“테크의 혁명 패러다임은 10년 단위로 온다.”

장의성(사진) 미래에셋증권 반포역 WM 지점장은 '글로벌 AI 섹터에 투자하자'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장 지점장은 "PC, 인터넷, 모바일에 이어 인공지능(AI) 시대가 작년부터 왔다. 최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주가가 시작됐다"며 AI 패러다임 시대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장 지점장은 AI 산업의 발전을 △인프라의 시대 △서비스의 시대 △로봇의 시대 등 3단계로 봤다. 그는 "챗GPT부터 AI 시대가 열리면서 AI 반도체 수요가 많아졌고,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인프라에 전문화된 투자가 필요하다"며 "연간 글로벌 반도체 투자는 1000억 달러(약 138조 원), 매출은 5000억 달러(약 691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지점장은 "로봇과 AI가 만나서 현실세계에서



물리적인 AI가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시대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지점장은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지에서 중소형주로 매매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큰 패러다임에 편승해 글로벌 선두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항상 보여왔다. 시대적인 트렌드와 맞는 선두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부동산 시장 혼란기 투자법, 입지·가성비 분석”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김학렬(사진) 스마트튜브 소장은 부동산의 입지를 분석하고 목적에 맞는 정석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수치로 보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혼조세다. 부동산 거래량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고, 주택 미분양은 1년 전보다 줄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월 전국 미분양은 6만4874가구로 지난해 2월보다 14.0% 감소했고, 직전 달보다는 1.8%(1119가구) 늘어났다.

김 소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뭘 해도 되는 시장'이었다"며 "하지만 뭘 해도 안 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투자의 본질을 정확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지에 따른 투자 방식을 △가치 투자(안전마진 투자) △발전가능성 투자 △배당 투자 △트레이딩(단기 갭투자)로 구분했다.

랜드마크가 아닌 아파트 투자를 한다면 기준이 되



는 아파트와의 가격 차를 보고, 저평가된 매물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랜드마크 아파트라면 발전 가능성을 판단할 때 수요가 오를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 김 소장의 주장이다.

수익형 부동산에 배당 투자를 할 경우에는 월세 수요가 많은 곳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일 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이거나 특수 목적의 지역, 교통망이 훌륭한 지역이 해당된다. 경쟁 상품이 들어올 여지가 적은 지역도 향후 시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하지은 기자 hje@

“집 수요 줄고 매물만 늘어… 더 빠지면 사라”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

이광수(사진) 광수네 복덕방 대표가 "집을 사려는 수요는 줄고, 팔려는 매도 물량만 늘고 있어 하반기 집값은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대표는 '부동산 시장, 무엇이 중요한가?'란 주제로 진행한 강의에서 시장의 우려와 달리 유통성은 2001년부터 2022년까지 크게 줄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형태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데, 매수 수요는 줄어든 반면 매도 물량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서울 아파트 월별 매도 물량은 5만1000건 정도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1월에는 7만7800건까지 늘었다.

그러면서 상반기 감지된 거래량 상승 등 회복세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대표는 "집을 살 수 있는 유효수요는 감소하고 팔고 싶은 사람만 많아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투자계획



은 이를 고려해서 세워야 하고, 굳이 집을 무리해서 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금리와 정책, 여소야대 정국 등 대외변수가 좋지 않아 투자 심리가 꺾이면서 갭투자 건수가 줄고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 같은 혼동기에는 주택 구매를 결정할 때 'What(무엇)'보다 'When(언제)'이 더욱 중요하다고도 했다. 결국, 집값이 충분히 하락해야 수요가 회복하고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서민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NH가 손을 보겠습니다

금융의 손길이 닿아야 할 곳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NH농협금융은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농민은 물론,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언제나 농민과 서민의 든든한 금융동반자로서 손 내밀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갑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초대 우주청장에 윤영빈 교수... 본부장에 나사 출신 존 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초대 우주항공청장(차관급)에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우주항공임무본부장(1급)에는 존 리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 본부장을, 차장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기용했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다음달 27일 출범하는 우주정 고위직 인선을 발표했다.

성 실장은 윤 청장에 대해 "1996년부터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로켓추진연구실을 이끌고 있다"며 "액체 로켓, 가스터빈 엔진 등의 연구를 40여년간 수행해오며 나로호 개발,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 1단계 사업 등에 참여해 성공적 추진에 기여해온 우주 추진체 분야의 우리나라 대표 연구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추진기관 관련 주요 학회장을 지냈으며 서울대 항공우주기술연구소장, 차세대 우주추진연구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연구와 행정 모두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며 "우주 관련 이벤트마다 언론에서 1순위로 찾는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온화하고 인자한 리더십을 바

尹청장, 로켓 연구 최고 권위자 나로호·한국형 발사체 개발 참여 29년간美 나사서 근무한 존 리 우주 프로젝트 이끌 책임자 평가 차장엔 노경원 과기부 실장 기용 "우주 개발의 새로운 출발 시작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 줄 것"

탕으로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출범과 안착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두고는 "미국 이민 1.5세대로, 1992년부터 나사에서 근무를 시작해 나사 헬리오피스 프로젝트 관리자,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위성 통합관리본부장, 수석 어드바이저 등으로 근무하는 등 29년간 재직하며 굵직한 우주 프로그램을 관리해 온 우주 분야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미 백악관 행정예산국에서 예산관리자 직책을 수행한 이력도 언급하며 "나사와 백악관에서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경



우주항공청 초대 청장에 내정된 윤영빈(왼쪽부터)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 내정된 존 리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 본부장, 차장에 내정된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참석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소개 발언을 듣고 있다.

험, 국제적 고위급 네트워크로 임무 지향적 프로젝트 중심인 임무분부를 이끌어갈 최고의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노경원 차장에 대해서는 "작년 9월부터 연구개발정책실을 맡아 우주항공청 출범의 산과 역할을 해왔다"며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행정 전문성 모두 갖춘 최고 전문가다.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내정한 것은 우주항공청이 조

기에 안정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이 2022년 11월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설립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선과 관련해 "업계 최고 전문가들을 주요 직위에 내정한 만큼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해 우리나라 우주항공산

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성 실장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우주항공 분야 컨트롤타워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된다"며 "우주항공청이 그 운영을 지원해 부처 간 정책조정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브리핑에 함께한 윤 내정자는 "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인들의 숙원사업이었다"며 "단순한 정부 조직 신설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이번 정부의 담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대 수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과거 미·소간 우주 경쟁에서 뒤쳐진 미국이 1958년 나사를 발족해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 우주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처럼, 우리도 우주항공청 설립과 더불어 우주 개발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주 수송·탐사 분야 기술을 바탕으로 우주 개발을 효율적으로 끝내내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우주항공청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영인 기자 oin@

'25만원' 반대 목소리 크지만... 대통령실, 거부 대신 한발 물러서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진 회동이 23일에 이어 25일 두 번째로 열린다.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등의 의제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나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총선을 통해 압축한 민심을 엿본 만큼 결국 한발 물러나 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방향을 택할 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전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전날에 첫 회동이 이어 25

'민생 추경 13조원' 부담 크지만 영수회담서 '협치' 의지 보여줘야 지원금 규모나 대상 조정 가능성 오늘 두번째 실무회동... 결과 주목

일 두 번째 실무회동을 한다. 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회담 준비를 위해 대통령실과 2차 실무회동이 내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로 알려졌다. 전날 회동은 2차 회동 날짜

도 확정하지 못한 채 40여분만에 종료됐다. 1차 실무진의 만남에서 민주당이 던진 의제는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용, 13조 원 추경(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 대통령 재의요구권 사과 등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다. 대통령실은 그간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무분별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정부와 여당 역시 뼈대한 재정 여력

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노동계마저 반대하는 논평을 내놓은 상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무능한 대통령 덕에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지만 거대 야당, 원내 1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라며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내놓고 거부하긴 어려운 처지다. 총선에서 야당에 크게 참패한 데다 영수회담이 8번의 제안 이후 성사되는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태도 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협치를 위해 대통령실이 결국 한발 물러나 금액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 같은 선택으로 의제 줄다리기가 끝나야 회동 시기가 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주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했던 영수회담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청년의 노후준비, dice@11pm의 세 번째 시리즈 <브라보 마이 라이프> 콘텐츠 큐레이션 매거진

은퇴 후 어디서 살아야 행복할까? 40·50세대 맞춤 주거 가이드

'은퇴 후 평생 살 집'

매일 밤 11시, 당신이 잠 못드는 시간, 미래를 위한 주사위를 던져보세요

'dice@11pm'의 세 번째 이야기, "은퇴 후 평생 살 집"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인생 2막을 앞두고 라이프스타일의 변곡점을 맞은 40·50세대는 여생을 보낼 집을 찾고자 합니다. 집은 우리에게 안식처이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dice@11pm'은 세 번째 이야기로 노후 주거지에 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단독주택의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귀농귀촌부터, 대기 행렬이 이어지는 프리미엄 실버타운까지 다양한 주거 유형을 소개합니다. 나에게 맞는 집은 무엇인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후기청년의 노후 준비 <dice@11pm>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후기청년의 노후 준비 'dice@11pm' 시리즈 매일 밤 11시, 미래에 대하여 많은 불안과 고민을 안은 40대 이상을 위해 인생의 지침서를 제공하려 합니다. 정부기관과 지자체, 교육기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이 책 한 권에 집약했습니다. 'dice@11pm'은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지면 구성구석 준비된 QR코드는 독자들을 새로운 정보의 원천으로 안내합니다.

이투데이퍼낸서 **BRAWO**

<브라보 마이 라이프> 편집부 지음 | 166쪽 | 16,000원

배추·김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2%대 물가 조기안착”

정부, 물가안정 현안간담회

정부가 물가안정화를 위해 배추, 양배추, 김(마른김·조미김)을 비롯한 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1리터(L) 당 최대 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대응방안,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굴곡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

내달 중 관세 인하분 신속 공급 단근 등 25개 품목 납품단가 지원

알뜰주유소 시중보다 40원 낮춰 유가 안정 때까지 매주 동향점검

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 등 총 5종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내달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배추, 양배추, 토마토, 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최상목(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춘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대 중성어종 6종의 경우 정부 비축물량을 3월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1960톤) 대비 79.5%(1559톤)를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한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기존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 조미김 등 총 2종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

업계에 원가하락분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품가격에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석유류에 대해서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것과 더불어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1리터당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후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자율레이저 스캐닝 장착한 로봇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전자제조산업전 x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에서 자율레이저 스캐닝 모듈 장착 로봇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연봉 오른 998만명, 4월 월급 깎인다

직장가입자 998만 명의 4월분 국민건강보험료가 1인당 20만 원씩 추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연말 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71만명은 정산이 없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10회 분할기준 월 평균 2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 납부자는 지난해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

건보료 20만원 추가 부과

2023년 보수 변동 내역 반영 보수 깎인 357만명 13만원 환급

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 1626만명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9255억원으로 전년(3조7170억원) 대비 약 16.8% 감소했다. 추가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20만3122원)은 2022년도 정산분 추가 납부액(21만3719원) 대비 1만597원 감소했다.

환급받는 가입자의 1인당 환급액(13만4759원)은 2022년도 환급액(10만495원) 대비 3만2464원 증가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2024년 기준)이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횟수를 10회 이내에서 변경하기를 원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공단에 5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공단은 “임금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과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3월 인구가동 49년만에 최저치

고령화·주택 입주 지연 등 영향 56만명 거주지 옮겨... 4.4% ↓

지난달 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 사람이 49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3월 국내인구가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입신고서 중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은 56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4%(2만6000명) 줄었다. 3월 기준으로 1975년(55만4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이동자 수는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들어서는 주택 거래의 반등에 힘입어 이동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지난달에는 작년 9월(-1.6%) 이후 6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주택 매매 거래가 늘었지만, 주택 입주 시기의 차이로 이동이 줄어든 것으

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지난 1월 주택 매매 건수는 4만3000건, 2월도 4만3000건으로 각각 작년 같은 달보다 1만7000건, 2000건가량 늘었는데 학교 입학 등으로 3월보다 2월에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월 이동자 수는 65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2% 증가했다. 작년 3월에 58만9000명으로 0.3% 늘어난 기저효과도 일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이동률도 13.0%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낮아졌다.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을 시도별로 보면 인천(3237명), 경기(3226명), 충남(2176명) 등 7개 시도는 인구가 순유입됐다. 경남(-1778명), 대구(-1483명), 서울(-1237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을 기록했다.

세종=정효영 기자 moonrise@

고속도로 뺑 뚕리나... 2026년까지 상습정체 30% 줄인다

고속도로 차량 정체를 줄이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의 평일 경부선 구간은 확대되고 주말 영동선 구간은 폐지된다. 또 일반차와 급행차로를 구분해 운영하는 ‘장거리 급행차로’ 도입도 검토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정체길 30% 감축’을 목표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15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버스전용차로 개선을 추진한다. 평일 버스전용차로 경부선 구간은 확대하고, 주말 영동선 구간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의 점선 차선은 실선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버스의 급격한 차로 변경으로 인한 차량 정체를 막고 차선 변경 전 충분한 여유 공간 확보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나들목(IC) 진출입 차량의 차로 변경에 따른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차로와 급행차로를 구분해

정부, 평일 경부선 버스차로 확대 진입 교통량 조절 ‘램프미터링’ ‘장거리 급행차로’ 도입도 검토

운영하는 ‘장거리 급행차로’ 도입을 검토한다. 장거리 급행차로는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쳐 정체 개선 효과를 분석한 뒤 시범 도입한다.

이와 함께 IC와 휴게소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에 따른 정체 완화를 위해 ‘램프미터링’을 시범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램프미터링은 고속도로 진입부에서 신호 제어로 진입 교통량을 조절하는 기법이다.

교통시설 개량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내 오르막 차로 구간 정체 원인으로 지적된 저속·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도 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으로 변경하고, 용량 부족 등을 겪는

도로 구간에서는 소규모 모용량을 증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신설 또는 확장 중인 고속도로가 순차적으로 개통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설·확장 사업이 완료되면 상습정체 구간 가운데 37개 구간의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대중교통을 활용한 고속도로 이용 수요 증대 차원에서 고속도로 내 소규모 환승 시설 구축 방안도 마련했다. 소규모 환승 시설은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 설치돼 광역·고속버스, 시내버스, 승용차 등 여러 교통수단을 환승·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연내 판교 등 4개소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로 유지보수 공사 시 통행 전면 제한하고 단기간 집중 공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커넥티드카 연동 시스템 구축과 고품질 CCTV 도입 등 사고 조기 인지 체계를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순익 반토막’ 테슬라… “저가車 조기 출시”로 주가 반등

〈1분기 11억달러〉

분기 매출 4년 만에 뒷걸음질 악성 재고·AI 투자 원인 꼽혀
머스크 “신차종 내년 초 생산” 시간외거래서 주가 13% 폭등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1분기 실적에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며 ‘어닝 쇼크’에 빠졌다. 이례적인 실적 부진이었으나 저가 전기차 ‘모델 2’ 출시를 앞당긴다는 발표 덕에 주가는 반등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장 마감 후 발표한 실적에서 1분기 매출은 213억100만 달러(약 29조 31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다. 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20년 2분기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순이익은 아예 반 토막 났다. 작년 1분기(25억1300만 달러) 대비 55% 급감한 11억2900만 달러에 머물렀다.

무엇보다 영업이익률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게 충격이었다. 자동차 기업에 ‘영업 이익률 10%’는 꿈의 수치다. 독일 포르쉐와 BMW 정도만 꾸준히 10%를 넘고 있다. 테슬라 역시 꾸준히 10%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해 왔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이 기록이 처참하게 깨졌다. 작년 1분기 11.4%에 달했던 영업이익률은 올해 5.5%로 쪼그라들었다.

테슬라는 1분기 어닝쇼크 원인으로 27억 달러에 달하는 악성 재고, 인공지능(AI) 기술투자에 쏟아낸 10억 달러 지출 등을 꼽았다.

그러나 시장은 그동안 우려했던 저가

전기차 출시를 앞당기겠다는 테슬라의 발표에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 테슬라 주가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정규 거래에서 1.85% 상승으로 마감, 8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나서 시간외 거래에서는 13% 이상 폭등했다.

이제껏 테슬라의 성장세를 주도한 차는 2017년 선보인 모델 3다. 우리 돈으로 1억 원을 훌쩍 넘었던 테슬라 라인업에서 6000만 원 수준의 모델 3가 등장하자 시장은 열광했다. 뒤이어 등장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Y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앞세워 돌풍을 일으켰다.

실제로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을 보면 모델 3와 모델 Y의 판매 비중이 전체의 95.6%에 달한다. 다만 출시 7년을 넘어 서면서 모델 3부터 판매가 감소 중이다. 여기에 전기차 수요가 저가로 이동 중인 만큼, 모델 3의 아랫급으로 등장할 모델 2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그러나 모델 2 데뷔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테슬라는 당초 올해를 데뷔 시기로 제시했으나 계획이 계속 지연됐다. 심지어 로이터통신은 이달 초 테슬라가 모델 2 생산을 포기하고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에 집중할 것이라고 보도해 시장에 충격을 줬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더 저렴한 전기차 출시를 포함해 수익성 있는 성장에 집중하겠다”며 “신차종 생산을 가속할 것이다. 생산에 들어갈 시기를 당초 예상했던 내년 말에서 초로 앞당길 것”이라고 말해 그간의 우려를 씻어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아소 전 총리, 트럼프 찾아…美 대선에 대비하는 日
도널드 트럼프(왼쪽) 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 있는 트럼프타워에서 자신을 찾은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는 아소 전 총리를 반갑게 맞으면서 “친애하는 친구인 신조(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통해 알게 됐다”며 “우리는 많은 것을 논의할 것이다. 명예로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트럼프 캠프 측은 1시간가량 회동에서 두 사람이 미·일 동맹의 중요성, 북한과 중국을 둘러싼 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자민당 부총재인 아소를 보내 줄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뉴욕(미국)/AP연합뉴스

틱톡 美 퇴출법 사실상 확정… EU도 규제 추진

상원까지 ‘강제매각법’ 통과
바이든 이미 서명 의사 밝혀
틱톡 소송 뎀 시행까지 수년

중국의 인기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으면서 틱톡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게 됐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0일 하원에서 가결된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이 담긴 ‘대의 안보 패키지 법안’과 총 950억 달러(약 130조 245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에 대한 안보지원 예산안 3개 등 4개 안건을 묶어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

두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서명의 사를 밝힌 만큼 해당 법안은 24일 백악관에 도착하는 대로 발효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세계에 미국 리더십의 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법안이 내 책상에 당도하자마자 서명해 법제화하고 국민에게 연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발효되면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최대 1년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매각 시한은 270일이지만, 대통령이 1회에 한해 9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다만 틱톡은 이미 법안 통과 시 법정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실제 법 시행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시효가 사실상 멈추기 때문에 법안 시행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NBC뉴스는 전했다.

틱톡은 이미 미국에서 비슷한 유형의 정치적 움직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미국 몬태나주가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틱톡 전면 사용을 금지하려 했으나, 연방법원은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시행 불가 판결을 내렸다. 2020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바이트댄스에 틱톡 미국 사업을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에 의해 저지됐다.

틱톡은 유럽에서도 규제 위협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은 전날 틱톡이 출시한 저사양 버전 ‘틱톡 라이트’를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EC)는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이 “중독 효과를 비롯해 초래되는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 없이 출시됐다”며 “틱톡 라이트가 ‘라이트 담배’ 만큼 유해하고 중독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선 기자 hsbun@

JP모건 CEO “美 믿기 어려울 정도 호황”… 연착륙엔 “글썸”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경제가 믿기 어려울 정도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연착륙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이날 뉴욕 이코노믹클럽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의 경제 상황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이며 한동안 호황을 누리왔다”면서 “침체에 빠진다고 해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양호한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 경제가 지금까지는 꽤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연착륙 유형

의 시나리오처럼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인 월가 초창기 시절 자주 언급했던 “시장은 대부분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번에도 그런 상황 중 하나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불안 요소로 막대한 국가부채와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다이먼 CEO는 월가에서 한때 대통령 선거 출마설이 돌았던 것과 관련해 “나는 항상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그러려면 여러분이 나에게 기쁨을 부여해야 한다(실제로 표를 찍어줘야

한다)”고 답해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는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탕평책’을 당부하기도 했다. 다이먼은 “누가 당선되든 반대 정당 인사를 내각에 앉히기를 바란다”며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라면 내각에 공화당 의원을 몇 명 임명하거나 도널드 트럼프라면 반대로 민주당 인사를 앉히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다이먼 CEO는 3연임 도전에 나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 대해서는 “인도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냈다”며 “4억 명을 빈곤에서 구해냈다”고 극찬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테슬라 분기별 매출 증가율



테슬라 23일 일일 주가 변동



美 ‘동종업계 이직 금지’ 협약 없앤다

연방거래위, 3대 2로 폐지안 통과
기술산업 등 美 근로자 18% 수혜
기업들 ‘기밀보호에 필요’ 소송 예고

미국에서 같은 업종으로 이직을 금지하는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이 사라진다. 이 협약은 유사특허와 독점기술·영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한 이 제도가 근로자의 이직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급여 인상과 창업을 억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워싱턴포스트(WP)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3일(현지시간) 이를 골자로 한 ‘비경쟁 계약’ 금지 방안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비경쟁 계약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고용하며 계약서를 체결할 때 ‘동일 업종으로 이직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에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FTC는 이런 비경쟁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동시에 이미 관련 계약이 체결됐을 때도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했다.

동종 업계 이직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의 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급여 인상과 창업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 노동부의 2022년 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18%가 비경쟁 계약을 적용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새 규정은 바로 적용되지 않고 관보 게시 180일 후에 발효된다. 또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 단체들은 FTC의 새 규정에 반대하며 소송을 예고해 시행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재계는 독점 기술과 영업 기밀을 보호하려면 비경쟁 계약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김준형 기자 junior@

내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장애를 넘어, 하고 싶은 것이 많았던 한솔 씨가
장애청년드림팀을 만나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희망을 전하는 유튜버가 된 것처럼
신한은 도전하는 청년들과 아름답게 동행합니다

청년은 더 빛나야 하니까 아름다운 동행

구독자 80만 유튜버 '원샷한솔'
(장애청년드림팀 15기 출신)

[장애가 꿈을 막아설 수 없으니까, 장애청년드림팀]

장애청년드림팀은 2005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초의 장애청년 해외 연수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꿈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000여 명 지원, 37개국 연수)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지속가능 미래 만드는 K-화학... 친환경·고부가 기술 과시

‘차이나플러스 2024’ 가보니

24일 찾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플라스틱 전시회 ‘차이나플러스(Chinaplas) 2024’는 개막 2일 차에도 세계 각국에서 모인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전시관 한 쪽에 마련된 미팅룸에는 사업 협력이나 제품 구매를 문의하기 위한 고객사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중국 상하이 국립전시컨벤션센터(NECC)에서 23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차이나플러스는 미국 플라스틱 박람회(NPE), 독일 K소와 함께 글로벌 3대 화학 산업 전시회로 꼽힌다. ‘스마트 제조, 첨단소재 및 친환경 재활용 솔루션’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서 4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가했다.

국내 화학 업체들은 차이나플러스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선보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산 범용 제품에 밀려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수익성 높은 스페셜티(고부가가

스마트제조·첨단소재 등 주제 150여개국서 4000개사 참가 국내 석화산업 위기극복 기회 롯데케미·SK지오 스페셜티 제품 LG화학은 친환경 소재 등 전시

치) 소재를 앞세워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롯데케미칼은 다양한 스페셜티 제품과 배터리 소재·수소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부스를 꾸렸다.

‘스페셜티 솔루션 존’에서는 충격에 강한 초고충격 폴리프로필렌(PP)과 고투명 의료용 PP, 접착력이 우수한 태양광 봉지재용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를 비롯해 일반 페트(PET)보다 재활용 성이 우수한 ‘페트 클리어’ 소재로 만든 용기들이 전시됐다.

반대편에는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배터리 소재와 수소에너지 사업 관련 내용을



중국 상하이 국립전시컨벤션센터에서 23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 플라스틱·고무 전시회 ‘차이나플러스 2024’에서 관람객들이 롯데케미칼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케미칼

담은 ‘그린 테크놀로지 존’이 자리했다. 롯데케미칼은 양극박과 동박, 전해액 유통용, 분리막 소재 등 배터리 핵심 소재 뿐만 아니라 부용용 플라스틱을 생산하며 전기차 시대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페플라스틱 열분해유기기술과 함께 암모니아를 활용한 정정수소 추출·운반 등의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형과 그래픽으로 구현했다.

SK지오센트릭 역시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를 집중적으로 선보였다.

특히 에틸렌 아크릴산(EAA)과 아이오머(I/O)를 핵심 제품으로 소개했다. EAA는 포장재용으로 쓰이는 고부가 화학제품으로, 기존 제품 대비 재활용성을 높이는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SK지오센트릭은 2017년 미국과 스페인의 EAA 공장을 인수한 데 이어 중국에 3번째 EAA 공장을 건설 중이다. SK지오센트릭 관계자는 “중국 공장이 완공되면 아시아 유일의 EAA 생산 거점을 확보하게 되면서 아시아-태평양 권역의 EAA 수요를 독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G화학은 국내 기업 중 최대 규모인 121평 규모의 부스에 60여 종 이상의 제품을 전시했다. 특히 친환경 제품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바이오 원료로 만든 플라스틱, 열분해용 플라스틱을 비롯해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만든 플라스틱 소재 등도 함께 선보였다.

상하이=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현대차·대한항공 ‘5G 기반 UAM 상용화’ 세계 첫 실증

인천공항·KT·현대건설과 원팀 운항·교통관리·버티포트 검증 등 그랜드챌린지 1단계 성공적 마무리

현대자동차·대한항공이 국내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첫 실증사업에 성공했다. 5세대(G) 통신망을 활용해 UAM을 운영한 것은 세계 최초다.

현대차·대한항공은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KT, 현대건설과 함께 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진행된 ‘한국



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 위치한 UAM 전용 시험장에서 실증사업에 참가한 ‘K-UAM 원팀’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형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K-UAM 그랜드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내년 국내 UAM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운영 개념·기술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민관 합동 대규모 실증사업이다.

현대차와 대한항공은 실증사업 참가를 위해 2021년 KT, 인천국제공항공사, 현대건설과 함께 ‘K-UAM 원팀(One Team)’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들 기업은 실증 1단계에서 △기체 및 운항 △교통관리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에 대한 공동 검증을 완료했다. 기체는 항공우주연구원 개발한 수직이착륙 항공기(eVTOL) ‘오파브(OPPAV)’를 사용했다.

이번 실증에서는 세계 최초로 5G 항공통신망을 바탕으로 기체와 UAM 운용시스템 간 통합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

현대차는 UAM과 육상 모빌리티를 연결하는 MaaS(여러 이동 수단을 단일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UAM을 이용하는 승객이 출발지에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다양한 모빌리티를 연결해 이동하는 과정을 실증했다.

대한항공은 자체 개발한 UAM용 ‘운항통제시스템’과 ‘교통관리시스템’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입증했다.

K-UAM 그랜드챌린지 참가 기업은 이번 1단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UAM 산업 활성화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해 지속 협력한다. 이민재 기자 2mj@

“물류·유통에 최적화”... 현대차 첫 PBV ‘ST1’ 출시

물류·유통기업 불편사항 발굴 주력 무한변신 가능한 ‘비즈니스 플랫폼’ 카고 317km·카고 냉동 298km 주행

현대자동차그룹의 첫 양산형 목적기반 차량(PBV) 모델인 ‘ST1’이 공개됐다. 현대자동차는 ST1 개발을 위해 여러 물류 유통 기업과 협력했다고 소개하며 ST1을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정의했다.

현대차는 23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ST1 카고·카고 냉동 모델을 처음 선보이고 개발 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ST1은 사시캡(뒤쪽 적재함 없이 차량의 뼈대와 승객실만으로 구성된 차량)을 기반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 최적화된 형태로 차량을 만들 수 있는 PBV 모델이다.

사용자의 요구를 담아야 하는 만큼 소형 상용차를 직접 활용하는 물류·유통 기업과도 협업해 차량을 개발했다.

오세훈 현대차 PBV 개발실 상무는 “CJ대한통운, 롯데그룹, 한진택배, 이케아(IKEA), 쉐리 등 국내 주요 업체들과 개발 초기부터 긴밀히 협업해 물류 업체의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ST1은 단순히 물류·유통뿐 아니라 사



2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ST1 신차 발표회에서 정유석(왼쪽부터) 현대차 국내사업본부 부사장, 민상기 PBV사업실장, 오세훈 PBV 개발실 상무가 ST1 카고모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용자 요구에 따라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작전차·응급 구조차·캠핑 카·비즈니스 차량 등 다채로운 특장 모델을 제작할 수 있다. PBV 모델임에도 현대차가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표현으로 ST1을 설명하는 이유다.

민상기 PBV사업실 실장은 “ST1은 현대차와 고객, 사업자가 연계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정의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적합한 성

능도 갖췄다. 현대차가 이날 공개한 ST1 카고·카고 냉동 모델 모두 76.1킬로와트시(kWh)를 장착했다.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는 카고 317km, 카고 냉동 298km다.

일반적인 탑차와 달리 전고를 낮춰 지하 주차장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됐다.

김우석 현대차 국내상품운영2팀 팀장은 “초급속 충전이 가능해 충전 시간을 단축시킨 것은 물론 안전·편의 사양 측면에서도 중국 상용차 대비 우세하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재 기자 2mj@

LG엔솔, 특허 무임승차와의 전쟁

전략특허 1000건 중 58% 침해 소송·경고 등 강경 대응키로

LG에너지솔루션이 업계에 만연해 있는 ‘특허 무임승차’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으로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에게는 소송·경고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배터리 특허 라이선스 시장을 조성해 배터리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특허 중 경쟁사가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략특허 수는 1000여 개에 달한다. 이 중 실제 경쟁사가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특허 수만 해도 580건에 이른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대표적으로 안전성 강화 분리막의 전극 접착력을 높여 다양한 전극조립체를 구현할 수 있게 하는 특허 기술이 꼽힌다.”

LG에너지솔루션이 2018년 세계 최초로 음극에 적용한 혁신적인 코팅 기술인 더블 레이어 코팅(DLD) 기

술과 탄소나노튜브(CNT) 선분산 기술 등 핵심 공정 기술을 접목한 전극 설계 특허도 다수의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같은 방침을 세운 이유는 지식재산권(IP)에 대한 후발기업의 무분별한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소형 배터리부터 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이미 상업화돼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경쟁사 제품에서 LG에너지솔루션 고유 기술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우수한 특허를 확보하기 어려운 후발기업들은 특허 무단 사용을 통해 유럽, 중국, 인도, 동남아 등으로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특허센터장 상무는 “LG에너지솔루션은 산업의 초창기부터 배터리 시장을 개척해 온 오리지널 이노베이터”라며 “앞으로 기술 주도권을 지키고 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허권의 정당한 거래 시스템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침해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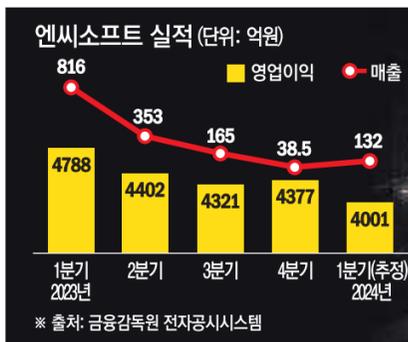
위기의 엔씨소프트... 'M&A·글로벌' 승부수 통할까

최근각종리스크에둘러싸인엔씨소프트를 두고 위기의 목소리가 나온다. 12년 만에 실시하는 인수합병(M&A)과 올해 내놓을 신작으로 반전을 모색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2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비개발·지원조직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해당 조직 직원 중 내부 평가 최하위 등급에 속한 인력을 권고사직 대상으로 선정, 통보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퇴직 절차는 이르면 내달 초 진행될 예정이다. 회사는 인원 감축 규모에 따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전체 인력의 약 5% 이상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임직원 5000명의 가운데 250명 내외가 대상으로 전망된다.

이번 구조조정은 체질 개선을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인력과 관련해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엔씨소프트는 실적 및 주가의 폭락, 신용등급 전망 하락 등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의 올 1분기 매출액은 전년



올 1분기 영업익 84% 급감 전망 전체 인력 5% '눈물의 구조조정' '슈퍼계정 의혹' 공정위 조사까지

동기 대비 16.4% 줄어든 4001억 원, 영업이익은 83.8% 감소한 132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기대하는 매출액(4136억 원)과 영업이익(140억 원)을 모두 하회할 전망이다. 주가도 마찬가지로 다. 한때 100만 원을 넘어섰던 엔씨소프트의 주가는 19일 기준 16만 3000원까지 곤두박질쳤다. 신용등급 전망도 좋지 않

다.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전날 "엔씨소프트의 영업 수익성이 저하돼 현금흐름 구조가 악화됐다"며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여기에 22일 실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슈퍼계정' 현장 조사까지 진행되며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공정위는 엔씨소프트가 '리니지M'과 '리니지2M'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슈퍼계정' (강력한 아이템을 가진 캐릭터)을 활용해 게임 내 경쟁에 참여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게임이용자협회와 리니지 유저 1000여 명이 공정위에 조사

"국내외 기업과 M&A 적극 검토" 지난달 전담TF 만들어 논의 한창 'TL' '블소2' 등 글로벌 시장 공략

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

이같은 상황에서 엔씨소프트는 12년 만의 M&A와 신작 출시로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리니지' 시리즈의 하락한 매출을 다양한 포트폴리오 확충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목표다. '리니지M' 시리즈가 포함된 모바일 매출은 2022년

1934억 원에서 지난해 1200억 원으로 37.95% 줄었다. 같은 기간 온라인 매출은 3904억 원에서 3651억 원으로 6.48% 감소했다.

엔씨소프트가 알짜기업을 인수할 경우 포트폴리오 확대,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올해 3월 새롭게 엔씨소프트의 공동대표에 오른 박병무 대표는 "엔씨소프트의 게임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는 국내외 기업을 후보로 M&A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달 M&A를 위한 사내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게임사의 본질인 게임 개발과 출시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다수의 게임들을 글로벌에서 선보일 예정으로, 글로벌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상반기 난투형 액션 '배틀크러쉬(BATTLE CRUSH)'와 수집형 역할 수행게임(RPG) '프로젝트BSS'를 출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쓰론 엔리버티(TL)'를 북미에, '블레이드&소울'을 중국에 선보일 계획이다.

임유진 기자 newjean@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우주 안착... 안보·재난 신속대응 기대

'네온셋 1호' 지상 교신 성공

국내최초의 초소형 군집위성 '네온셋(NEONSAT·사진)' 1호가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2027년까지 총 11대의 100kg 미만 소형 위성을 군집 운영하기 위한 첫 시도로, 한반도 주변의 정밀 감시와 재난·재해에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초소형군집위성은 한반도와 주변해역을 높은 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 안보와 재난·재해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과학

해외 영상 구매 비용부담 줄고 기존 중·대형 위성보다 더 자주 더 넓은 지역 관측 가능해져

2027년까지 총 11대 운용 계획

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세트렉아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력해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개발 비용은 2027년까지 약 231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네온셋 1호는 이날 오전 7시 32분(한국 시각)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미국 발사체

기업 로켓랩의 '일렉트론'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당초 오전 7시 8분 57초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우주비행체와 충돌 가능성, 지상 시스템 문제 해결 등으로 늦어졌다. 네온셋은 발사 약 50분 뒤 발사체에 분리돼 고도 400~500km 지점에 진입했고, 오전 11시 57분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을 통해 수신한 위성정보를 분석한 결과 위성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태양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돼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위성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과기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경에 노르웨이의 스발

바르 지상국과 정상적으로 위성 송수신 상태를 확인했다.

군집의 시작(Beginning Of The Swarm)이란 뜻의 '비티에스'(BTS)란 임무명이 붙은 이번 발사는 총 11기 군집 위성 체계 구축을 위한 첫 번째 위성이다. 1호기의 적응 테스트를 바탕으로 나머지 위성들의 성능을 보완해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5기씩 추가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2~6호기부터는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에 실려 발사돼 2027년 말쯤 11기 군집 운영 시스템이 갖춰질 전망이다.

향후 초소형 군집위성을 11대 모두 운용할 경우, 매일 3회 이상 한반도 지



역을 촬영할 수 있다. 동일 지점은 24시간 이내 재촬영도 가능하다. 500km 고도에서 위성의 해상도는 흑백 1m, 컬러 4m 해상도로 지닌 전자광학카메라로 관측한다.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의 안보와 재난·재해 대응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 초소형 군집위성 시스템은 불필요한 해외 영상 구매 비용을 줄여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경량·저전력·저비용이 특징이다. 이은주 기자 letswin@

민관 5000억 합동출자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

"우리엔 세계 시장에 주저 없이 도전하는 K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를 믿어주는 과감한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힘을 모은다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역대 가장 성공한 벤처 펀드가 될 것입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서울마포구 호텔나루 서울 엠밸러리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역동적인 벤처 투자의 생태계', '글로벌 창업 대국 실현'이라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의 두 가지 철학을 담고 있다"며 "많은 민간 자금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손실은 정부가 먼저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에 적극적으로 배분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펀드에서 차지하는 정부 재정의 비중은 낮추고 더 많은 민간 자금이 참여하도록 설계했다"며 "중기부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금융권 등 21곳 참여 초격차·세컨더리·K글로벌 3대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과 정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해 함께 조성하는 상징적인 펀드다. 정부가 우선순실총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에서 더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펀드 출범 첫해인 올해에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 원 이상 출자에 나섰고, 여기에 정부 재정 2000억 원 이상을 더해 총 5000억 원 이상을 민관 합동으로 출자한다. 이를 통해 약 8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는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

이번 펀드는 윤석열 정부의 창업벤처

정책의 청사진인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상징하는 벤처 펀드로 평가한다.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 등 민간 경제 주체와 정부가 함께 조성하고 △초격차(바이오·인공지능·로봇 등) △세컨더리(구주 투자와 M&A 투자 등) △K글로벌(한국인 창업가 보유 해외법인 투자)의 3대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것이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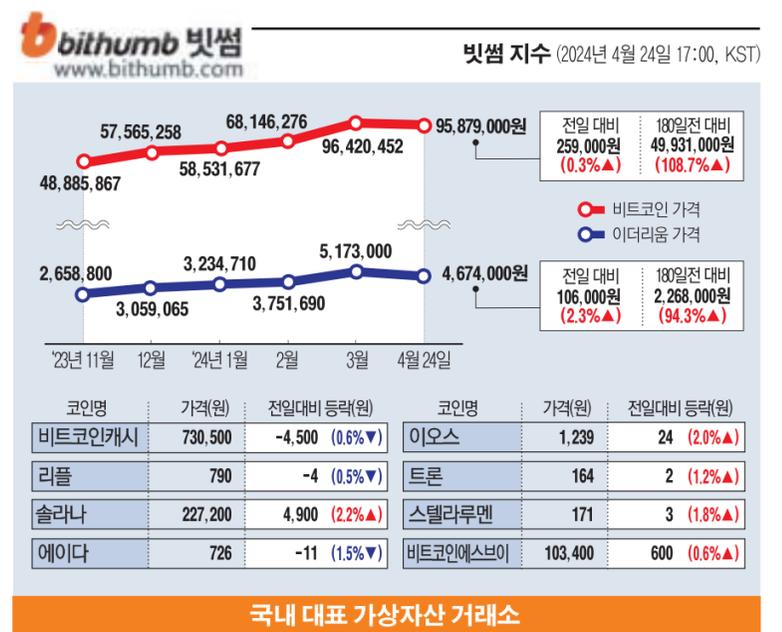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국장은 "모데 펀드가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올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4년간 총 2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자에 나선 기업들도 이번 펀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손태도 신성델타테크 사장은 "스타트업은 엄마가 아기를 돌 보듯이, 대기업을 비롯해 이해관계자들이 케어해야 한다"며 "우리 회사 역시 이젠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는데 커가는 과정에서 기

업 이해관계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감사한 마음에서 출자했고 앞으로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낙양 효성그룹 부사장은 "효성은 벤처 지원을 위해서 2년 전부터 지원하고 투

지고 있다"면서 "방탄소년단(BTS), 손흥민 축구선수 등 예술계·체육계에서 국위 선양했다면 이젠 과학기술계에서도 세계를 장악할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삼바, 1분기 매출 9469억 신기록... 올해 4조 돌파 예약

작년보다 영업이익 1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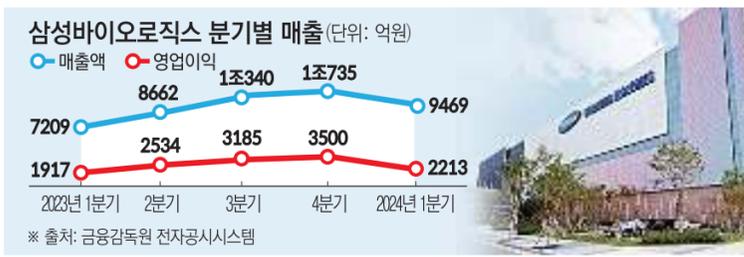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공장의 순항에 힘입어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1조 원 돌파 기록에 이어, 올해는 매출 4조 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결기준 1분기 매출 9469억 원, 영업이익 2213억 원을 기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지난해 1분기보다 각각 31.35%, 15.41% 늘어난 규모다.

매출확대는 24만 리터 규모의 4공장이 이끌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UCB와 3819억 원 규모의 증액 계약을 시작으로, MSD와 신규 928억 원, 증액 1546억

원 계약을 연이어 맺어 올해만 6292억 원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빅파마와 대규모 계약을 늘리면서 가동률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4공장의 매출 반영은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나 '상저하고'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10~15% 증가할 것이라던 연초 전망치를 유지했다.

원 계약을 연이어 맺어 올해만 6292억 원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빅파마와 대규모 계약을 늘리면서 가동률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4공장의 매출 반영은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나 '상저하고'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10~15% 증가할 것이라던 연초 전망치를 유지했다.



수주 확대의 배경에는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도 주요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배치(바이오의약품을 1회분 생산하는 단위) 성공률은 99%로 업계 최고 수준(업계 평균 90~95%)이며, 올해 1분기 기준 규제기관 승인은 누적 271건이다. 이렇게 쌓은 신뢰로 글로벌 빅파마를 고객사로 꾸준히 확보하며 장

사 이래 누적 수주 총액은 125억 달러를 넘어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별도기준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한 6695억 원, 영업이익은 4공장의 가가상각비 등 비용 증가로 소폭 감소한 2327억 원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소도 호실적을 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판매가 늘어나면서

매출 2801억 원, 영업이익 381억 원으로 각각 31%, 6% 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가하는 바이오 의약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5공장을 짓고 있다. 5공장은 1~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해 18만 리터 규모로 설계됐다. 완공되면 총 78만4000리터의 생산능력이 확보된다. 또 포트폴리오 확장 측면에서 항체 약물접합체(ADC) 분야에 적극적이다. 연말 준공을 목표로 ADC 전용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삼성물산과 조성한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독자 ADC 기술을 보유한 미국 브릭바이오(BrickBio)에 투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터지면 '잭팟' ... K-제약·바이오, 희귀질환 정복 '고삐'

자체기술 접목 치료제 개발·투자 안정적 수요 확보 매출 시너지 기대

한독, 2개 제품 식약처 허가절차 한미약품, 고인슐린혈증 2상증 종근당, 후보물질 기술수출 성과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희귀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기업들이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공급에 투자와 관련 자체 기술을 적용해 신약을 개발에 나섰고, 파트너십으로 공급망을 구축해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한독은 올해 2월 스웨덴 기업 소비와 희귀질환 비즈니스 합작법인 '한독소비(Sobi-Handok)'를 공식 출범시켰다. 양사 지분 투자비율은 49대51로, 한독은 향후 소비의 제품을 국내에 출시할 계획

기업	현황	특징
한독	스웨덴 기업 '소비(Sobi)'와 '한독소비(Sobi-Handok)' 출범	Sobi 제품 국내 허가 진행 중
한미약품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치료제 개발	FDA, EMA, 식약처 희귀의약품 지정
GC녹십자	노벨파마와 산필리포증후군 A형(MPS III A) 치료제 개발	FDA, EMA 희귀의약품 지정
종근당	노바티스에 사르코마리투스병 치료제 'CKD-510' 기술수출	FDA 희귀의약품 지정

※ 출처: 각사

이다. 대표 제품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노증 치료제 '엠펙벨리',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치료제 '도프렐렛' 등 희귀질환 치료제다. 현재 2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한미약품은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혁신신약으로 개발 중인 LAPS 글루카곤아날로그(HM15136)의 국제일반명(INN)을 '에페거글루카곤'으로 확정하고, 이달 18일

세계보건기구(WHO)에 공식 등재했다. 에페거글루카곤은 독자 플랫폼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물질로, 주 1회 투여 제형이다. 현재 임상 2상 중이며, 미국 식품의약품(FDA), 유럽 의약품청(EMA), 식약처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GC녹십자는 산필리포증후군 A형(MPS III A)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MPS IIIA는 리소좀 축적 질환으로, 중

추신경계에 점진적인 손상을 유발한다. GC녹십자는 바이오벤처 노벨파마와 공동으로 뇌실 내 직접 투여용(ICV) 효소 대체요법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올해 1월 FDA와 EM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고, 23일 FDA에 임상1상시험 계획서(IND)와 패스트트랙 지정을 신청했다.

종근당은 희귀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의 기술수출 성과를 냈다. 지난해 글로벌 제

약사 노바티스에 희귀난치성 유전병인 사르코마리-투스병 치료제로 개발한 'CKD-510'의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13억5000만 달러(약 1조7000억 원)에 이전했다. CKD-510는 2020년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시장 전망도 밝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0년 1380억 달러(180조 원)에서 2026년 2680억 달러(34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기업 관계자는 "대다수 희귀질환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미충족 수요가 크다. 첫 번째로 치료제를 완성하는 기업은 지속해서 발생하는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라며 "치료제에서 발생하는 매출뿐 아니라, 특정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확보하는 제반 기술의 가치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한성주 기자 hsj@

M&A 힘주는 국내외 제약업계

글로벌 인수합병 전년비 2배 ↑ 루닛·오리온·동구바이오제약 등 올 초 헬스케어 인수합병 잇따라

글로벌 제약사의 인수합병(M&A)이 활발한 가운데 국내 기업도 M&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M&A로 사업확장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서다.

24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자산가치 2억5000만 달러(약 3446억 원) 이상 거래 기준, 올해 1분기 글로벌 헬스케어 인수합병은 29건으로 집계됐다. 거래량은 전년(28건)과 비슷하지만, 거래액은 500억 달러(약 68조 원)로 전년 760억 달러(약 104조 원) 대비 34% 감소했다. 이중 제약·바이오는 13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45% 이상으로 거래가 가장 활발했다. 거래 건수도 지난해 6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1분기 국내 헬스케어 M&A가 다수 나왔다.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이 지난해 12월부터 인수를 추진 중인 볼파라헬스테크놀로지(볼파라)는 최근 열

린 주주총회에서 루닛에 의한 피인수인권을 찬성 96.92%로 의결했다. 볼파라는 뉴질랜드의 유방암 검진 AI 기업이다. 5월 중 기존 볼파라 주주들에게 인수 대금을 지급하면 마무리되며, 루닛은 볼파라를 100% 소유 자회사로 편입할 방침이다.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구 레고캠바이오)는 올해 초 오리온에 인수됐다. 오리온은 제3자 유상증자와 구조매각으로 리가캠 지분 25.73%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다. 리가캠은 확보된 5500억 원으로 공격적인 연구개발을 진행, 글로벌 항체약물접합체(ADC)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최근 신약개발 기업 큐리언트에 100억 원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 회사는 큐리언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8%를 획득하면 최대주주가 된다.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라이프시멘틱스는 올 초 건강관리 앱 파프리카케어에 인수했다. 바이오 재생의료기업 시지바이오는 지난해 12월 정형외과 임플란트 제조사 이노시스 지분 23.54%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줄이는 사직·휴직에 휴진까지... 의료공백 '초읽기'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두 달이 넘은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사직·휴직과 대학병원 진료 중단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대학이 일부 조정하도록 양보했지만, 의사단체들이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견해를 좁히기 어려워 보인다.

방재승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 의회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4일 서울의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30일 중증·응급·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비대위는 병원측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지만, 사직 의사를 밝힌 이후 30일이 지나면 민법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 사직에 대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학에 남아 휴진을 양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진료 중단 정부 "대규모 사직 사태 없을 것"

성하고, 질환을 연구하면서 환자에게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다. 이들이 대학을 떠나는 결정을 하는 절망적인 모습을 조롱하지 마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공백을 초래할 대규모 사직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는 사표를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하실 무책임한 교수들도 현실에서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예정대로 25일 발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위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화 제안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도 나왔다. 전날 "5+4" 의정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거부했다"는 대통령실 발표에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내리진 업무 개시명령 등의 행정명령 취하, 증원 중단 등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줘야 대화의 자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공의들이 병원 업무에 복귀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태로 3간병원을 지켰던 교수들마저 휴진 및 사직을 실행하면 5월부터 대학병원의 혼란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배우경 서울의대비대위 언론대응팀장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아 필수의료에 파고적인 여파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현재 사태 해결되지 않아 우울과 불안을 느끼시는 국민께 당사자로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성주 기자 hsj@ 세종=김지영 기자 jye@

비용절감·물류혁신... 신선식품 이커머스 “만년적자 탈출”

수익성 개선 전결음

정육각, 켈리, 오아시스 등 신선식품 이커머스가 비용절감과 물류효율화를 통해 ‘흑자’ 고삐를 당긴다. 특히 올해를 실적 턴어라운드 원년으로 삼아 만년적자 꼬리표를 떼겠다는 각오다.

24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소비자 대상 직접판매(D2C) 푸드테크 스타트업 정육각은 올 6월 흑자전환을 목표로 경영 개선작업에 한창이다. 정육각은 새벽배송 위주인 신선식품 이커머스와 달리 ‘초신선’이 최대 특징이다. 도축 4일 이내 돼지고기와 당일 도계한 닭고기, 당일 얻은 계란·우유 등을 고객 주문 즉시 당일배송 또는 새벽배송을 한다. 정육각은 2022년 기준 매출 414억 원, 영업손실 282억 원

정육각, 6월 흑자전환 목표로 공장가동 늘리고 CRM 고도화

켈리, 1분기 사상 첫 흑자 전망 광고·물류비 개선해 손실 줄여

작년 최대 실적 거둔 오아시스 연내 AI 무인결제 인건비 축소

을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폭도 2022년 대비 80% 가까이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육각은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아도 손익분기점(BEP) 달성이 가능한 비용 구조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제조공장 가동일을 주 5일에서 7일로 늘려, 주말 수

신선식품 이커머스 비용 절감 방안

정육각

- 제조공장 가동일 주5일서 주7일 변경
- 매스 마케팅 중단해 판관비 축소
- 고객관계관리 고도화해 재구매율 제고

Kurly

- 광고선전비 등 판매·관리비 절감
- 창원·평택 물류센터 생산성 증대

OASIS

- AI 무인결제 시스템 상용화해 인건비 감소
- 오프라인 매장 축소 통해 점포 효율화

※ 출처: 각사

요에 대응하고 신선식품 재고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또 2022년부터 매스 마케팅(mass marketing: 대량 생산-대량 유통-대량 판매 마케팅)을 줄였다. 대신 고객 관계관리(CRM)를 고도화시켜 기존 고객의 재구매율을 높였다. 신규 고객 유치 대신 기존 고객에 집중한 것이다. 정육각은 5-6월 중 2차 가공식품을 론칭, 외형 확대에도 나선다. 육류가 주재료인 국탕류를 메인으로 상품을 확장한다.

작년 12월부터 3개월 연속 월간상각전 영업이익(EBITDA) 흑자를 낸 켈리는 올 1분기 사상 첫 흑자 달성을 확실시 하고 있다. 켈리도 판관비를 줄이는 동시에 직접물류비를 개선했다. 특히 광고선전

비를 2022년 500억 원대에서 2023년 300억 원대로 크게 낮췄다. 효과가 크고 확실한 광고만 두고 나머지 광고는 모두 줄인 셈이다. 여기에 직접물류비 개선이 켈리의 영업손실폭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신규창원·평택 물류센터의 생산성 증대와 동시에 송파 물류센터의 문을 닫아 주문처리비용을 크게 줄였다. 또 배송단가 경쟁력 확보, 배송 집적도 향상 등도 배송비 절감의 이유다.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오아시스의 실적 전망도 올해 맑다. 오아시스는 연내 인공지능(AI) 무인결제 시스템을 상용화시켜 오프라인 매장 인건비를 추가로 줄일 방침이다. 오아시스의 AI 무인결제 시스

템은 360도로 물건을 인식, 가격을 스캔해 자동 결제가 이뤄진다. 상품의 인식을 개을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진행해 왔다. 오아시스는 현재 무인결제 시스템 관련 특허 3개를 특허청에 등록했고 추가 특허출원도 준비 중이다. 또 오아시스는 오프라인 매장을 축소, 점포 효율화도 꾀했다.

이들 업체가 올해 유의미한 실적 성과를 내면, 신선식품 이커머스도 만년적자 사업에서 ‘돈 벌 수 있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시장에 각인시킬 수 있다. 이는 곧 투자유치, 상장 등으로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업계 전반에 흑자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고무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본사갑질 저지선” 對 “쟁의 도화선 될 것” 가맹사업법 개정안 놓고 팽팽

가맹점주의 단결권·교섭권을 허용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입장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24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5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

가맹점주 단체 공정위 등록시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권 생겨 업계 “K프랜차이즈 열풍 찬물”

는 안전을 야당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단체는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가 모인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정무위 통과 직후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복수의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난립해 불필요한 분쟁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이미 여러 규제로 인해 갈라 파고스 적이라고 지적받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돼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도 연다.

반면 가맹점주 측은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해 거대본사의 불공정행위·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다.

현장 가맹점주 입장은 엇갈린다. 경기 광명의 편의점주 김수환 씨(가명)는 “점주를 보호해 줄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프랜차이즈 피자 점주 이태우 씨(가명)는 “요즘엔 본부도 상생하려고 노력하기에 굳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42@

네파, 착화감 극강 하이킹화 ‘휘슬라이저’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는 극강의 쿠셔닝으로 편안함 착화감을 선사하는 하이킹화 ‘휘슬라이저’를 새롭게 선보인다.

24일 네파에 따르면 휘슬라이저는 네파코리아 독점 ‘휘슬링 쿠셔닝 폼’이 적용돼 최상의 쿠셔닝과 우수한 충격 흡수 기능으로 장시간 착화에도 피로감 없이 편안한 발걸음이 가능하다. 초경량 무게에 고어텍스 인비저블 핏 적용으로, 방수·방풍·투습 기능은 물론 내발 모양에 딱 맞게 감싸주는 편안한 착화감을 자랑한다. 바닥 전면에는 부틸 고무가 함유된 ‘에

‘휘슬링 쿠셔닝 폼’ 적용



네파가 새롭게 출시한 하이킹화 ‘휘슬라이저’.

너지 휘슬링’ 아웃솔로 접지력을 높였고, 반발탄성으로 마치 걸을 때마다 에너지가 충전되는 듯한 추진력을 자랑하는 ‘에너지 플로우’ 패턴으로 운동에너지를 절감하고 발 뒤틀림까지 방지해 안정적인 착화감을 선사한다.

또한 다양한 컬러와 범용성 높은 디자인으로 아웃도어 활동은 물론 데일리 아이템으로도 스타일 리시하게 활용 가능하다.

네파 관계자는 “휘슬라이저는 뛰어난 쿠셔닝과 편안한 착화감으로, 본격 아웃도어 시즌을 맞아 소비자 반응이 뜨겁다”고 전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NH농협금융

나와 가장 가까운 NH농협생명 스마트 직영점

보험 설계에서 가입과 청구까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PC와 모바일로 간편하게!

인슈어애드 챗봇
보험업계 최초 AI 설계사 대화형, 스토리형 챗봇 기능

NH헬스케어 플랫폼
일상 속 건강관리 앱 헬스케어 서비스

NH농협생명 디지털 서비스

페이퍼리스 청구
생명보험 최초 서류 없는 보험금 청구

NH검진케어
온라인 보험 최초 맞춤 검진 추천 및 예약

TM보험스마트 고객확인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전화모집·모바일 청약결합)

내맘같이

〈한화생명 사장〉

한화생명, 인니 은행 진출... 김동원 '글로벌 리더십' 빛났다

인니 노부은행 지분 40% 매입

CGO 맡은지 1년만에 성과 거둬
글로벌 종합금융그룹 도약 초석
계약서 체결·인허가 승인 남아
동남아 시장 확장 거점 기대 커
金, 세계 리더들과 네트워크 다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이 최고글로벌책임자(CGO)를 맡은 지 1년여 만에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한화생명이 인도네시아 현지 리포그룹의 노부은행 지분 40%를 손에 넣은 것. 이번 투자는 그동안 김동원 사장이 글로벌 리더들과 쌓아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다.

한화생명은 현지 브랜드 가치가 높은 리포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기반을 다져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4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금융회사 투자 승인'의 건' 안건이 통과됐다. 한화생명이 인도네시아 리포그룹이 보유한 노부은행 지분 총 40%를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노부은행 지분투자 절차는 '양사의 계약서 체결' 및 '양국 감독당국의 인허가



김동원(왼쪽 두번째) 한화생명 사장, 여승주(첫번째)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 존 리아디(세번째) 리포그룹 대표가 1월 17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생명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명·손해보험업을 넘어 은행업까지 영위하는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제·인구가 성장 중인 인도네시아를 주요거점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전략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이번 지분투자 성공 배경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인 김동원 사장의 역할이 컸다. 김 사장은 포화상태인 국내 시장을 뛰어넘어, 글로벌시장에서 활로

를 모색하고 장기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CGO를 맡아 해외사업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번 계약은 김 사장이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존 리아디 리포그룹 대표와 만나 대화에서 시작했다. 이날 두 사람은 지분투자건을 비롯해 양사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두 사람은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뒤 지난해 3월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의 리포손해보험 지분투자를 성사시킨 바 있다.

한화생명이 지분투자를 결정할 노부은행은 총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 2조3000억 원 규모로, 현지 30위권 수준의 중형은행이다. 인도네시아에서 금융·부동산·유통 등 다양한 사업영역을 운영 중인 세계 6위 리포그룹 소속으로 현지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다.

또 115개 지점과 1247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 모기지대출과 중소기업 운전자금대출이 주력상품이다. 강한 지점영업력을 바탕으로 팬데믹 상황에

서도 우수한 자본건전성과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향후 자사의 디지털 역량에 리포그룹의 현지 은행 경영 노하우를 접목해 단기간 내 시장에 안착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초기에 한화생명과 한화금융계열사가 지닌 디지털 모바일 경험을 빠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내방 중심의 전통적 채널에, 디지털 뱅킹 등을 더한 하이브리드 채널을 구축해 모바일 기반 영업환경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방카슈랑스채널을 활용한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의 생보상품과 리포손보의 손보상품 판매로 시너지 극대화도 예상된다.

파트너십을 통해 리포그룹이 현지에서 지닌 브랜드 인지도 및 영향력과 계열사 임직원·공급망·고객 등 전·후방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객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은 "국내시장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선 글로벌 공략 가속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노부은행 지분투자로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해, 향후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시장 확장전략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dove@

'농협 지배구조' 정조준... 금감원 칼 뽑았다

직원 횡령·소비자 피해 잇따라
사전검사 도입... 내달 정기검사
내부통제 취약점 노출... 개선 필요

금융감독원이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들여다보고 개선에 나선다.

24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5월 중순부터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미 22일부터 사전검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통상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다음달 정기검사를 받는 농협금융과 농협은

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2월 검사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농협은행 직원의 100억 원대 횡령사고가 적발됐다.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을 발견했다.

검사 결과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고품을 수수한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및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협은행 B지점 직원은 고객(국내 금융업자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동의 없이 펀드 2억 원을 무단 해지해 횡

령한 사실도 발견했다.

금감원은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파악했다. 농협은행 다른 지점 및 다른 금융회사 등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통해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 농협중앙회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항을 들여다 볼 예정"이라며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케뱅크, 은행권 첫 '비상장주식 시세조회' 서비스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제휴

케이뱅크가 은행권 최초로 비상장주식 관련 시세 정보 제공에 나선다.

케이뱅크는 두나무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비상장과 제휴해 '비상장주식 시세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비상장주식 시세조회에서는 증권플러스비상장에서 거래되는 케이뱅크 등 6900개(일반투자자 거래종목 36개, 전문투자자 거래종목 6900개) 비상장주식의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시세조회는 '관심종목'과 '종목차트' 두 개 화면으로 구성됐다.

관심종목을 등록하면 해당 종목의 1~3

개월간 거래 시세와 전일 최고·최저가, 직전 1년간 최고·최저가, 예상 시가총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관심종목 알림받기' 기능을 이용할 경우, 관심종목 중 시세 등락이 큰 종목에 대해 매일(오전 10시) 알림도 받을 수 있다.

종목차트에서는 주요 비상장주식을 조회수, 기준가, 예상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최대 100까지 정렬해 보여줘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원하는 종목이 있다면 비상장주식 검색하기 기능을 이용해 편리하게 조회 가능하다.

신규 상장 임박한 비상장주식은 '공모주 메이트'와 연계해 종목 상세화면에서 청약 일정도 조회할 수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신한·삼성 등 10개 카드사 일제히 발급

"최대 53% 환급 'K패스' 신청하세요"

청년 이용액 30%·일반 20% 환급
연회비 면제·스벅 쿠폰 등 이벤트

카드사들이 매일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돌려받는 대중교통카드인 'K-패스' 카드를 일제히 출시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패스 카드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농협·DGB유페이·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협업 카드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내달 1일부터

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대체해 도입된다.

K-패스를 이용하면 일반인은 대중교통 지출 금액의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음 달 돌려받는다. 버스과 지하철은 물론 광역버스, 마을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등도 포함되고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신규가입자는 K-패스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신규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한카드는 이날 'K-패스 신한카드

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와 삼성카드, BC카드, NH농협카드, 카카오페이 등도 K-패스 전용카드를 내놨다.

각 카드사는 K-패스 카드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BC카드는 내달 31일까지 K-패스 카드를 발급받는 모든 고객에게 초년도 연회비를 면제해준다. 발급 후 애플리케이션(앱)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누적 이용한 대중교통 금액의 15%를 추가 캐시백해준다.

NH농협카드는 K-패스 카드의 합산 이용액 20만 원당 1개의 추첨권을 부여하고 신한카드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1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K-패스 카드로 KB페이(Pay) 결제 건당 1만 원 이상 이용 시 선착순으로 1500명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제공한다. 정성원 기자 jsw@

ELS 등 원금 비보장상품 판매 평가 강화

금감원, 민원 급증 금융사 조기점검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제도 개선키로

금융감독원이 추가연계증권과 같은 원금 비(非)보장상품 판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민원이 급증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조기 점검도 시행할 방침이다.

24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열고 74개 금융회사에 이러한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알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의 내부 통제 기준 마련과 운영에 대한 실태 평가 비중을 기존 3대 7에서 2대 8로 조정했다. 그간 내부 통제 기준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하는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이 반영됐는지 등 체계 마련 위주로 평가했다면 이제 실질적인 운영 여

부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불완전판매 등 원금 비보장상품 관련 소비자피해 및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민원 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상품 불완전판매 민원에는 계량 평가 시 가중치 1.5배를 부여하기로 했다. 비계량평가 측면에서는 원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평가 항목을 별도 신설해 판매 관련 논의 과정 등을 따져볼 수 있도록 했다.

내달 실시되는 2주기 실태평가 대상은 총 74개사로, △은행 16개사 △보험 25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저축은행 9개사 △여신전문 14개사 등이다. 올해 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5~10월 평가가 실시되며, 12월에 평가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김재은 기자 dove@

고개 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코스피 또 바닥 치나

'와타나베 부인, 조심하세요.' 1997년 3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일본의 전업주부가 고위험 해외 금융상품에 거액을 투자하는 현상을 소개하며, 이같은 제목을 붙였다. 와타나베 부인은 이자율이 낮은 일본에서 싼 이자로 거액의 엔화를 대출해 이자율이 높은 해외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주로 활용했다.

최근 일본이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종료를 선언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엔화 자산 매각 후 본국 송환) 시그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엔화 조달 비용 상승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본으로 환류되면 아시아권 금융시장에는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과거 5차례에 걸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 코스피 지수는 평균 32% 하락한 바 있다.

◇외국인 매수 강도 약세=24일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4월 코스피 시장에서 2조6000억 원 순매수했다. 강도는 약해지고 있다. 2월 7조8583억 원, 3월 4조4285억 원에서 점차 순매수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외국인 매수 코스닥 시장에서 이달에만 7260억 원이 팔아치웠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시그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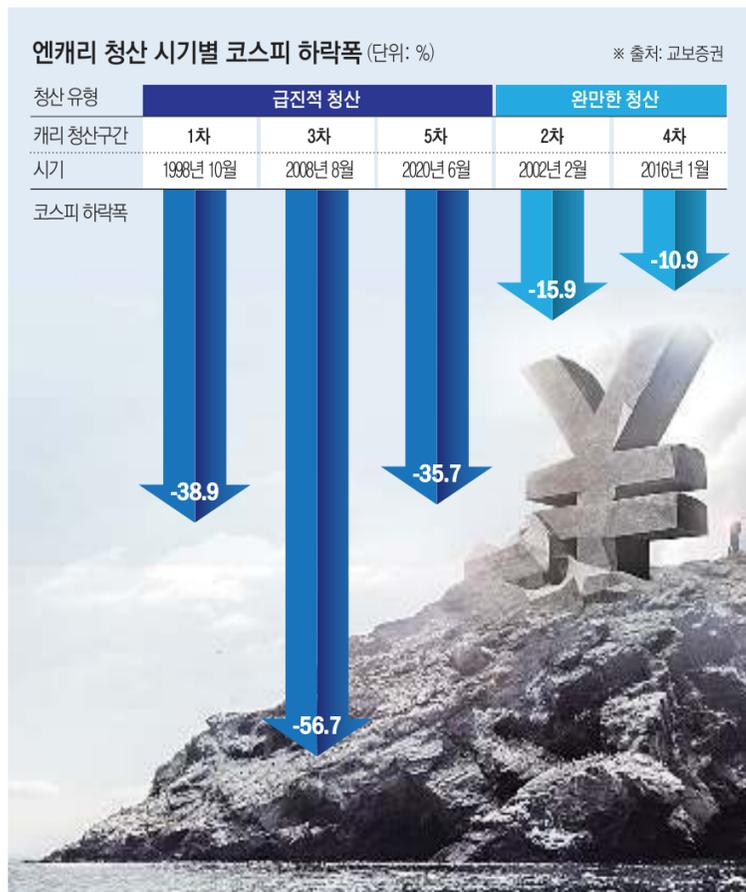
과거 캐리 트레이드 청산 구간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주가 하락시 '매도' 주체 비중이 높아지고, 주가 상승시 '매수' 주체 비중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

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구간은 총 5차례다. 급진적 청산이 이뤄진 1차(1998년 10월), 3차(2008년 8월), 5차(2020년 6월)와 완만한 청산이 이뤄진 2차(2002년 2월)와 4차(2016년 1월)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하락시 외국인 매도 주체 비중은 2차 65.4%, 3차 85.7%, 4차 94.7%, 5차 88.9%에 달했다. 주가 상승시 외국인 매수 주체 비중도 2차 35.1%, 3차 28.6%, 4차 27.6%, 5차 34%로 약해졌다.

주가 하락때 외인 매도 비중 ↑ 코스피 평균 하락폭 32% 달해
이달 외국인 순매수 강도 약화 국내 증시 하방 압력 더 커질듯

현재 국내 증시의 메인 수급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하면 국내 증시는 더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캐리 트레이드 청산 구간에는 외국인 매수 자금 유입으로 인한 주가 상승은 쉽지 않으며, 외국인 매도로 인한 주가 하방 압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4년 전 청산때 코스피 36% 하락=키움증권에 따르면 2013년 4월 이후 엔화로 매수한 국가별 자산(주식+채권) 규모는 미국(71조7000억 엔), 케이먼군도(52조4000억 엔), 프랑스(9조9000억



엔), 호주(4조6000억 엔) 등의 순으로 크다. 이들 국가의 자산을 중심으로 엔화 포지션 청산이 일어날 경우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

과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때 코스피 하락폭은 평균 31.62%에 달했다. 가장

최근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벌어져 2020년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안전자산 선호와 코로나19에 따른 엔화 강세 압력이 더해지면서 캐리 청산이 일어났다. 캐리 청산 기간 수급 주체는 기관이었지만, 주가 하락시 매도 수급의 주

체는 외국인(88.9%)이었다. 외국인은 캐리 트레이드 청산 100일 전부터 급격하게 매도하기 시작해 청산 후까지 매도를 지속했다. 코스피는 35.7%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완만한 속도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지만 경기 침체를 야기할 정도로 확산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환율 변동성과 엔화 절상 움직임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청산(3차) 이후 최대로 추정되는 캐리 트레이드 규모 △확대되는 환(FX) 변동성 △미국·유럽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캐리 청산 자금 유출 △일본은행(BOJ) 점진적 금리인상 △역대급 금리 차이 등의 이유로 과거보다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엔캐리 트레이드 대상이 금리가 높은 신흥국 또는 미국과 유럽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 증시의 캐리 자금 유출은 글로벌 증시 민감도가 높은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이다.

강민석·신운정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번엔 캐리 청산은 과거의 완만한 청산 사례보다 엔 절상 속도를 높이고,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력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증시 하방 압력은 과거 대비 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올해 M&A 시장, 100억弗 메가딜 증가할 것”

국내 CEO·글로벌 PEF 리더 설문 “1년 내 딜 추진” 응답도 84% 달해

최근 지속하는 시장 불확실성에도 국내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8명은 올해 100억 달러 이상의 인수·합병(M&A)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4일 EY한영의 전략컨설팅 조직 EY-파트너스는 'EY CEO 아웃룩 펄스(EY CEO Outlook Pulse)'의 한국 CEO 응답 결과를 공개했다. 이 리포트는 전 세계 21개국 기업의 CEO 12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국내 CEO 78%, 사모펀드(PEF) 리더 71%는 올해 100억 달러 이상 인수·합병

(M&A) 메가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국내 CEO 중 84%는 1년 내 딜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딜 추진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 중 M&A를 고려하는 응답자는 36%, 매각·스핀오프·기업공개(IPO)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0%였다. M&A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수치는 지난해 같은 조사 대비 26%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10년 평균 42%에 비해서는 낮다. M&A 타깃 국가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꼽았다.

또한 국내 CEO의 96%는 지정학적 이슈로 전략적 투자 계획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자산 이전(44%) △투자 계획 연기(38%) △공급

망 재구성(36%) △특정 사업 철수(34%) △투자 계획 중단(22%)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20개국 PEF 리더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별도 조사 결과, 올해 메가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PEF 응답자는 71%에 달했다. 66%는 IPO 활동으로 시장 엑시트(투자금 회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변동범 EY한영 EY-파트너스 본부장은 “최근 PEF 주도의 딜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지난 2년 동안 PEF의 공격적인 자본조달과 드라이파우더(미소진자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해 앞으로 M&A 시장에서 PEF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

삼정KPMG, 변영훈·김이동·박상원 대표 승진

“77년생” 최연소 젊은 리더 탄생

삼정KPMG가 24일 경영위원회를 열고 변영훈, 김이동, 박상원 부대표에 대해 대표 직급 승진을 발표했다.

감사 부문 변영훈 대표는 1970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 학사와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1995년 삼정KPMG에 입사했다.

이후 제조 및 건설, 제약·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의 감사 경력을 두루 거쳤다. 감사품질 역량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올 4월 감사부문 대표로 선임됐다.

재무자문 부문의 김이동 대표는 1977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졸업 후 2000년 삼정KPMG에 입사해 삼정투자자문 본부장, 재무자문부문 5본부장을

역임했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업계 최초로 M&A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모은 'M&A센터' 리더도 겸임했다.

지난해 10월 탁월한 업무 성과로 재무자문부문 대표에 중용됐다. 특히 이번엔 대표로 직급 승진하면서 '최연소' 대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컨설팅 부문의 박상원 대표는 1968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 학사와 서울대 경영학 석사를 졸업한 후 아서앤더슨, 베어링포인트, AT커니를 거쳐 2008년부터 삼정KPMG의 컨설팅 업무를 주도해 온 '컨설팅통'이다. 새로운 시장 변화 대응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컨설팅부문을 이끌고 있다.

박상인 기자 si2020@

50조 빛더미... 이자 부담에 허리 휘는 증권사

PF위기 등 실적 악화로 자금수혈 ↑

국내 증권사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외부에서 빌린 돈이 5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60사의 지난해 말 기준 차입금은 54조4667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4.2% 늘었다. 액수로 보면 6조7900억 원 넘게 증가했다.

차입금 출처별로 보면 증권금융대출이 지난해 말 기준 25조6065억 원으로 같은 기간 17.6% 증가했다.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이

9829억 원으로 32.4% 증가했으며 외화차입금이 387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기업어음(CP) 등 단기차입금을 포함한 기타차입금은 27조7846억 원으로 10.5% 늘었다.

증권사별로 보면 미래에셋증권의 차입금이 7조6860억 원으로 28.1% 증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6조2542억 원으로 26.4%, NH투자증권이 4조7899억 원으로 19.0% 늘었다. KB증권은 46.7% 늘어난 4조6428억 원, 대신증권은 34.0% 증가한 3조887억 원이었다.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현대차증권으로 189.9% 불어난 1조2610억 원을 기

록했다. 리딩투자증권(178.5%), 토스증권(135.0%), 부국증권(77.5%), 교보증권(75.8%) 등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회사채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시중 자금이 메마르자 많은 기업이 비교적 금리가 낮은 은행의 대출 창구를 찾았는데, 증권사도 한국증권금융과 은행 등 대출을 적극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차액결제거래(CFD) 사태, 해외 부동산 손실 등으로 실적이 악화하면서 외부 자금 수혈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김효숙 기자 ssook@

HD현대마린솔루션, 공모가 8만3400원 확정

시총 3조7071억원 규모 예상

HD현대마린솔루션은 공모가를 희망 공모밴드(7만3300~8만3400원) 상단인 8만3400원에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16~22일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수요예측에는 국내 기관 1805개, 해외 기관 216곳 등 총 2021개 기관이 참여해 총 9억8451만1800주를 신청했으며 경쟁률은 201대 1을 기록했다. 수요예측

참여주식 수를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요예측 참여 금액은 약 82조 원이다.

수요예측 전체 참여 물량의 100%가 밴드 상단인 8만34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다. 의무보유확약 신청 비율도 45.1%로 2024년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3조7071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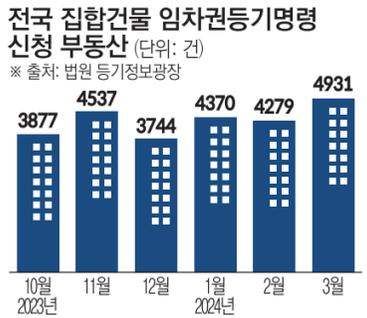
HD현대마린솔루션은 25~26일 일반 청약을 거쳐 5월 8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pmk8989@

‘불안, 불안’ 빌라 전세... ‘임차권 등기’ 신청 8개월새 최고

지난달 전국서 4931건 신청
올해 1·2월보다 15%가량 늘어
아파트 전셋값 40주 이상 상승
빌라 전세는 회복 기미 안 보여
빌라전세지수 4년반 만에 최저
“월세만 남고 전세 소멸” 전망도

전국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강통전세’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최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40주 이상 오르면서 전셋값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양새지만, 빌라 전세 시장은 회복 기미 없이 줄곧 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빌라 전세 시장의 신뢰 상실로 ‘전세 소멸’까지 접했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9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4370건과 2월 4279건 대비 약 15%가량 늘어난 규모다.

최근 1년간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추이와 비교하면 지난달 신청 기록은 지난해 8월(4812건) 이후 8개월 내 가장 많은 규모다. 지난해 7월 신청 건수는 5429건으로 지난해 기준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신청 규모가 줄면서 지난해 12월에는 3744건까지 하락했지만, 올해 신청 건수는 400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 후 세입자는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



할 수 있다. 최근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강통전세나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증가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별로 신청 건수를 보면 수도권보다 지방의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지난달 수도권은 신청 건수가 줄었지만, 부산과 충남, 경북

등에선 대폭 증가했다. 부산은 지난해 7월 256건에서 올해 3월 526건으로 급증했다. 대구는 이 기간 77건에서 103건으로 늘었고, 울산은 40건에서 51건으로 증가했다. 경북 역시 36건에서 91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밖에 충남, 경남, 전남, 전북도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올해 3월 신청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은 1863건에서 1355건으로 줄었다. 경기도는 1455건에서 1356건으로, 인천은 1213건에서 928건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별 희비가 엇갈렸다. 전국 주택 전셋값 통계만 봐도 최근 빌라 전세 시장 침체가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빌라 전세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이 지수는 3월 기준 98.14로 2019년 9월 98.15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11월 -0.04% 하락을 시작

로 5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어 이달 이후 추가 하락도 점쳐진다. 반면, 아파트를 포함한 종합 주택 전셋값 통계를 보면, 지난해 6월 91.4을 기록한 이후 줄곧 우상향해 지난달 92.6까지 올랐다. 여기에 향후 빌라 전세 시장 전망도 어둡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주택(빌라·단독주택) 전월세 거래 중 전세 비중은 46.9%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최저 수준으로 조사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아파트는 전셋값이 계속 오르겠지만, 빌라는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시장에서 빌라 전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고, 이런 현상이 지속하면 장기적으로는 빌라는 전세가 소멸하고 월세만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교육·교통·인프라 ‘3박자’... 원도심 아파트의 부활

경희궁 유보라·범어 아이파크...
재개발·재건축 분양 높은 경쟁률
최근 몇년새 입주한 아파트들도
꾸준한 수요 힘입어 거래가 경증



원도심에 공급되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원도심은 학군과 생활 인프라가 밀집해 주거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만, 노후 주택이 많아 신축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 유보라’는 5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089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124.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원도심 내 영천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분양된 대표적인 단지로, 우수한 입지와 생활인프라를 갖춰 많은 수요자가 몰렸다. 이어 이달 대구 수성구 범어우방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해 분양한 ‘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82가구(특별공급 제외)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왼쪽)과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투시도.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이달 분양하는 두 아파트는 각각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도 광명시 원도심 지역 주택 재개발을 통해 건설하는 단지이다. (오) 모집에 1256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15.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노후화된 원도심을 떠나 쾌적한 신도시로 이동했던 수요자들이 자녀 교육과 출퇴근 때문에 원도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학군이나 학원가의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만큼 희소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된다. 이러한 이유로 원도심은 수요가 꾸준히 유입돼 부동산 하락기에도 가격 방어력이 높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원도심에 위치한 ‘성북역 롯데캐슬 파크나

인’ 전용면적 84㎡는 올해 1월 10억 6000만 원에 거래돼 지난해 1월 동일면적이 7억 7000만 원에 거래된 것보다 1년 사이 약 2억 9000만 원 올랐다. 지방도 마찬가지로. 강원도 춘천시 원도심에 위치한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 전용 84㎡는 올해 3월 8억 700만 원에 거래돼 입주 직후인 2022년 6월 7억 500만 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1억 원 이상이 올랐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신도시나 택지지구와 같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은 입주 초반 인프라가 부족해 불만을 겪는 것과 달리 원도심의 경우 학군이나

상권, 교통망 등 모든 인프라를 입주와 동시에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며 “여기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수주를 위해 건설사에서 상품에 많은 공을 들이고, 규모도 큰 경우가 많아 지역의 집값을 견인하는 단지가 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원도심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로는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이 있다. 대우건설은 이달 26일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 다발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이 단지를 선보인다. 또 롯데건설은 이달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일원에서 원도심 광명 9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하고 DL건설과 DL이앤씨는 5월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일원 범일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 일원 흥은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한진리 기자 truth@

3기 신도시는 공원 도시로 LH, ‘숲길과 정원’ 100곳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에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선(線)형 중심의 ‘숲길과 정원’ 100여 곳을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파크커넥터’를 통해 분산된 공원 녹지를 연결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도보 생활권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과거 면(面)형 중심 공원의 낮은 접근성과 활용도를 보완할 수 있는 선형 공원으로 조성된다. 선형 공원이란 도심 내 어디에서든 공원과 연결 조성된 길을 통해 누구나 쉽게 녹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조성방식이다. 3기 신도시 평균 공원 녹지율은 30% 이상 수준으로 조성된다. 1인당 공원면적은 평균 18.8㎡ 수준으로, 이는 싱가포르, 뉴욕, 파리 등 주요 글로벌 도시 평균(13.3㎡)이나 서울(17.9㎡)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 3기 신도시는 대형 면적의 공원을 조성하기보다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을 1인당 15.2㎡로 높여 도보 10분 이내 누구나 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등하교길, 출퇴근길 등 일상생활 속 여러 이동 구간이 공원과 맞닿아 편리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LH는 3기 신도시의 선형 공원에 ‘파크커넥터’를 적용해 공원 간 연계 활용도를 크게 높인다. ‘파크커넥터’란 분산된 공원 녹지를 보행길로 연결해 공원 이용 및 녹지 체감을 높이는 것을 말하며 싱가포르에서 최초 도입됐다. LH는 폭 30m 내외의 넓은 선형의 공원을 ‘큰 이음길’, ‘작은 이음길’을 활용해 확장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LH는 공원접근성을 높인 도시조경계획을 반영해 연내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에 첫 번째 발주를 진행한다. 계양지구에는 ‘만발숲길’, ‘꽃길정원’, ‘단풍정원’ 등 다양한 숲길 및 정원을 특화 조성한다. 계절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하는 자연형 식재를 활용해 색감있는 자연경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은 “3기 신도시 ‘숲길과 정원’은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치유의 공간이자 쉼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원과 녹지의 연결성을 높이고 확장해 도시가 곧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현대엔지니어링 “발달장애인 자립 돕는다” 일산에 ‘굿월스토어 밀알백석점’ 문열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부금 후원
현대엔지니어링이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굿월스토어 밀알백석점’을 개관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열린 개관식에는 흥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과 이택수·곽미숙 경기도의원, 장동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장, 흥정길 밀알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예술단 ‘브릿지온 앙상블’의 오프닝 공연도 진행됐다. 흥 대표와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들은 개관식 이후 물품 분류, 지역 홍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을 위해 굿월스토어 설립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2020년 밀알일산점, 2022년 밀알탄현점에 이어 세 번째로 설립된 밀알백석점은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나눔기금에 회사가 동일한 기부금을 후원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후원금을 마련했다. 여기에 현대자동차그룹의 후원이 더해졌다. 굿월스토어는 기증품 수거부터 분류, 가공, 포장, 판매 등 모든 과정에 장애인 근로자가 참여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 재활시설이다. 현재 운영 중인 밀알일산점에는 발달장애인 14명을 포함해 총 23명, 밀알탄현점에는 발달장애인 5명 등 총 9명이 근무하



굿월스토어 밀알백석점 개관식에서 흥현성(오른쪽 다섯 번째)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와 밀알복지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의회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엔지니어링
고 있다. 밀알백석점에는 발달장애인 7명을 포함한 총 11명의 일자리가 마련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17년부터 임직원 참여로 물품을 모아 굿월스토어에 전달하는 물품 기증 캠페인도 하고 있으며 기증된 물품을 분류하는 봉사활동도 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밀알백석점 이 밀알일산점, 밀알탄현점과 시너지를 내면서 더욱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른 지역까지 점포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IBK기업은행이 나에게 왔다

중소기업 대출, 이제 비대면으로 신청하세요

집에서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내 기업에 맞는 제안이 찾아옵니다

**대출을 위해 하던 수고와 노력
이제 기업은행이 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561호(2024.03.20) 유효기간(2025.03.19) •대출통로 BOX관련 자세한 문의로는 BOX고객센터(☎02-729-7633) 혹은 IBK고객센터(☎1566-2566)으로 연락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
BOX** 대출통로

사업자라면 누구나 은행방문 없이 대출신청과 상담이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OPEN

당행 거래고객이 아니라도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O2O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은행이 알아서 연락하는 O2O 대출 서비스

ONE-STOP

복잡하고 다양한 대출심사 서류를
비대면으로 한 번에 제출



대출신청 바로가기

초등생이 8세에 “성관계 놀이하자”... 촉법소년 처벌 가능

이슈Law

최근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5~6학년으로 추정되는 남학생들이 8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에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면서 “성관계 놀이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며 희유했다고 쓰여있다.

이외에도 남학생들은 학원차에서 내린 8살 여학생을 놀이터로 유인해 신체 주요 부위를 보여주며 “네 것도 보자”고 했고, 여학생이 도망쳐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 따라가 “(CCTV가 없는) 계단실

놀이터로 유인해 신체 노출도 촉법이어도 중대한 범행이면 소년보호 처분 내려질 가능성

14~18세면 소년법·형법 적용 여중생 성폭행 남고생 7년형

로 가지”며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한다. 이후 다른 곳에서 또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 가해 학생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소년은 처벌 과정에서 성인과 차이가 있다.

소년법은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

년으로 나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죄를 저지른 자,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저지른 자를 의미한다. 우범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아동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들이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추정되므로 촉법소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 수사로 가해 학생들의 나이가 다르게 파악된다면, 그 연령에 응당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실제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학생이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관여도에 따라 함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형법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가해 학생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위 경우

에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해 처벌 받는다. 소년법상 보호처분(1~10호)이 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범소년에 해당할 경우 마찬가지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를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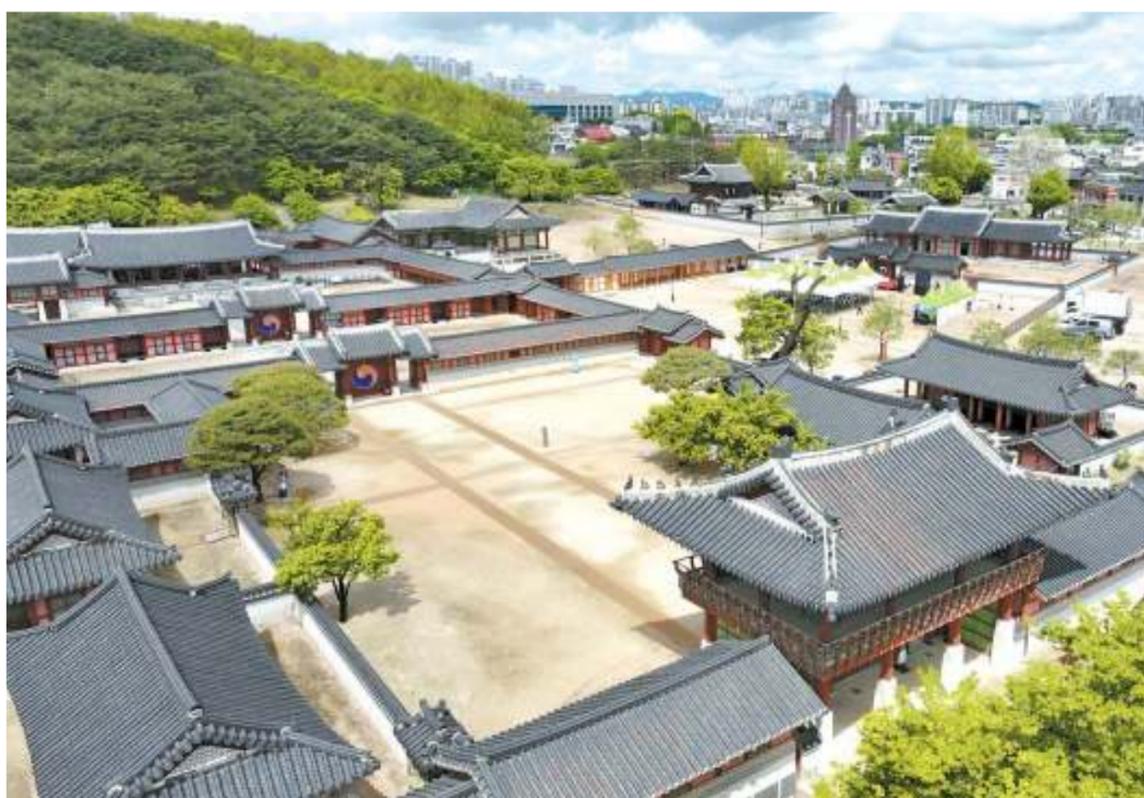
14~19세에 해당한다면 범죄의 중합 정도에 따라 소년법이나 형법이 적용되기도 한다. 성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한 범행을 했다면 강력한 처벌이 가해지는 것이다.

앞서 한 고등학생들이 같은 나이 여학생을 유인해 강간한 사건이 있었다. 이 중 학생 몇몇은 망을 보거나 영상 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소년원 6개월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교도소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소년원에 가게 된 셈이다.

고등학교 남학생이 메신저로 알게 된 중학교 여학생을 공원 내 화장실 데려가 문을 잠그고 강간한 사례도 있었다. 나중에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알몸 사진까지 받아낸 남학생은 결국 징역 장기 7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형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구로구 사건 가해 학생들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으로 범행을 했을 뿐 아니라 다른 여학생에게 추가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런 사정을 고려해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spes@



수원 화성행궁 119년 만에 복원 일제강점기에 훼손됐던 수원 화성행궁이 119년 만에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됐다. 1789년 정조대왕이 세운 화성행궁은 평상시에는 관청으로 사용하다가 임금이 수원에 행차할 때는 임금과 수행 관원들이 머무는 궁실로 이용됐다. 사진은 24일 복원사업을 통해 원래 모습을 되찾은 화성행궁 모습. 뉴시스

법원 “갈매지구 방음벽 비용 52억 고속도로 시공 건설사가 물어줘야”

기준 웃도는 소음 측정 손배소 “소송비용의 90%도 부담해야”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인접한 갈매지구 아파트 근처에 추가로 쌓여 된 방음벽 비용 52억 원을 고속도로를 준공한 대우건설 등 건설사가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재판장 김경수 판사)는 “대우건설 등 피고 10개 주식회사는 연대해 원고 서울북부고속도로에 5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의 90%도 이들이 부담하게 했다.

구리포천고속도로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서울북부고속도로는 2012년 대우건설, 태영건설, 지에스건설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에 이 고속도로 설계와 시공을 맡기로 하고, 총 1조2728억 원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건설사들은 2013년 고속도로 공사에 착공해 2017년 준공했고,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고속도로가 지나갈 갈매지구 아파트 인근에 방음벽도 쌓아 올렸다.

문제는 고속도로 개통첫해부터 갈매지

구 입주민들이 지속적인 소음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북부고속도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체적으로 소음을 측정했고, 갈매지구 아파트 일부 호실에서 들리는 소음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도로변에 있는 전용주거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도로 소음이 주간(06시~22시)은 65dB, 야간(22시~06시)은 55dB을 넘기지 않게 돼 있다.

그러나 갈매지구 특정 아파트 호실에서는 주간 최고 68.1dB, 야간 최고 63.9dB 등 기준을 웃도는 소음이 측정됐다.

이후 서울북부고속도로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갈매지구 입주민들과 추가 방음벽 설치, 저소음포장 시공 등에 합의하고, 추가 비용 52억 원을 고속도로 설계시공업체인 대우건설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소음환경기준을 충족하는 도로를 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지 않아 아파트 일부 호실에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공사도급계약의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꽃 기자 pgot@

서울시, MS 손잡고 AI 데카론 육성

우수 창업 발굴... 사업화 지원

서울시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해 인공지능(AI) 데카론(기업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인 신생 벤처기업) 육성에 나선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톤(창업+해커톤)을 개최하고, 초기 스타트업에는 성장 패키지 지원할 예정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AI허브’와 MS가 손잡고 AI 분야 데카론을 육성한다. 서울AI허브는 2017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AI 특화 창업지원시설로 산·학·연 공동연구, AI 고급인재 양성, 기업 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창업톤’을 개최해 우수 창업 아이디어

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MS MVP-서울 AI 허브 입주기업 ‘밋업데이(meet up day·만남의 날)’도 공동 개최한다. AI 분야 전문가들이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성장 패키지인 ‘MS 런처(Launcher)’도 지원한다. MS 제품 사용권 제공, 경영·임대료·해외투자 연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민을 위한 AI 리터러시(문해력) 교육은 올해 3회 개최한다. 챗GPT 등 생성형 AI 소개, 챗GPT를 활용한 ‘일 잘러’(일 잘하는 사람) 되는 법, 콘텐츠 크리에이터 되는 법, 마케팅 기획력과 실행력 향상 방법 등이 배울 수 있다. 예비 창업가와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AI 전문 특강도 연다. 김서영 기자 0jung2@

“치유 여행 키운다”... ‘웰니스관광지’ 77선 선배

문체부, 브랜드 이미지도 공개 대구 사유원 찾은 장미란 차관 “K-웰니스관광 체계적 육성”



테마)을 포함 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우수 웰니스관광지 총 77개소를 공개 했다. 수도권에서는 메이필드호텔 서울(서울), 허브 아일랜드 허브힐링센터(경기), 경원재(인천) 등이 선정됐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다양한 선택지로 즐길 수 있도록 자연·숲치유(25개소), 뷰티·스파(18개소), 힐링·명상(17개소), 한방(7개소), 스테이(7개소), 푸드(3개소) 6가지 주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우수웰니스관광지 77개소를 대표해 ‘사유원’에 현판을 제공했다. 현판에는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BI를 담았다. 브랜드 이미지는 가족의 건강과 복을 비는 마음을 담아 이어 붙인 전통 조각보 형상으로 제작됐다. 사유원을 방문한 장 차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K-웰니스관광의 새로운 브랜드로서 ‘우수웰니스관광지’ 77선과 한국 전통 조각보 모양을 본뜬 브랜드이미지(BI·이미지)를 공개했다.

24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 장미란 <사진> 차관은 우수웰니스관광지로 새롭게 선정된 곳 중 하나인 대구 ‘사유원’을 방문해 K-웰니스관광 브랜드의 출발을 알렸다.

웰니스(wellness)란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다. K-웰니스관광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관광을 표방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대구 사유원(힐링·명상



송석주 기자 ssp@

의대 선발 규모 결정, 5월 중순까지 순연 가능성

교육부가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교육부는 불가피한 경우 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한 후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는 사후 마무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각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 규모를 결정하는 시기는 다음달 중순까지 순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른 대입전형시행계획 제출 관련 추가 안내' 공문을 각 대학에 내려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증원분을 모두 반영한 모집인원을 대교협에 조속히 제출하라"며 "불가피한 경우 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한 후 학칙 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 사후 마무리도 가능하다"고 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기준 정원에서 지난달 20일 학교별 배정을

교육부, 대학에 '대입전형 계획' 공문 "시행 계획 우선 제출 후 학칙개정" 2026학년도 증원 2000명 '썰기' 이주호 "학생·교수 복귀 설득해달라"

완료한 2025학년도 증원분을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시행계획도 제출하라"고 했다.

다만, 해당 규정이 법령에 구속되는 게 아니라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심 국장은 "상황에 엄중함에 따라 대학들이 기한에 맞춰 빠르게 관련 계획을 제출해줬으면 하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심 국장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도 "과거에도 일부 대학이 5월 3일이나 5월 4일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뒤늦게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문은 2000명 증원 내용을 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 총장 영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영해달라고 썰기를 박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유지하되 내년도 증원 규모만 최대 절반까지 줄이기로 했다. 다만,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은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하

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2026학년도부터는 '2000명' 증원이라는 방침이 불가역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닌 상황이었다. 대통령 직속 의과개혁특위에서 의대 증원분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실제

로 전국 의대 학장 등 의료계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자 제안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 같은 공문은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를 외치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의대 증원 2000명'이란 정부기조를 대학에 못박고 나선 절차로 풀이된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이주호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었다. 의대 모집인원을 최대 절반 자율 감축 선발하도록 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간담회다.

이 부총리는 "의대 모집인원 유연화를 계기로 학생들과 교수가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해달라"며 "각 대학의 총장님들과 교수님들께서도 학사 정상화를 위해 학생 면담 등 면밀하게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습권 보호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교권 침해 교사, 상담·치료비 더 받는다... 구상권 청구액도 상향

서울시교육청 '비용부담 고시' 개정 구상권 하한선 250만원으로 올려 심리상담 횟수도 1년 20회로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치료비를 더 많이 지급하기로 했다.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 금액 하한선도 250만 원으로 종전보다 50만

원을 더 올렸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됐다.

해당 고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이 부담하는 보호조치의 비용과 구상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고시에는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학교

장이 상담 또는 치료를 받는 데 들어간 비용 부담에 대한 신청서를 내면 교육감이 14일 이내에 비용 부담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교육감은 피해를 입힌 학생의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교사에게 지급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고시에는 교사가 입원할 경우의 입원료, 진찰 및 수술 비용, 치아 보철비, 약제비, 한방치료 비용 등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 해당 고시의 '제4조 상담 지원 등 기준'에 따르면 교육감이 비용을 부담하는 교원의 심리 상담 횟수를 1년 내 15회에서 20회로 늘렸다.

또 '교육감이 피해교원에게 그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100만원 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학생의 교육과정 침해 행위로 인해 교사의 물건이 망가지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비용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금액 기준도 종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였다. 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다. 의료 기관에 입원해 요양 중인 피해 교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병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유정 기자 oiljung@


문화체육관광부


제 39회 현대백화점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THE HOUSE OF HAPPINESS

그림 주제 **행복한 집** 접수 기간 5.1(수) - 5.26(일)
 접수 방법 현대백화점 홈페이지·앱 참조
 결과 발표 6.19(수), 홈페이지 발표 및 수상자 개별 안내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면세점 | 더현대닷컴 | 현대홈쇼핑 | 현대버블 | 현대그린푸드 | 한성 | 더한섬닷컴 | 현대리바트 | 현대 이지텔 | 지누스 | 현대드림투어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

경쟁력 있는 분양가에 '계약금 5%' 부담 뚫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의 선착순 동·호수 지정계약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총 83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의 전용면적 84㎡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5억8950만 원으로 인근 분양단지보다 1억 원가량 낮게 책정됐다.

여기에 계약금 5%(일부가구), 1차 계약금 500만 원 혜택을 제공한다. 통상 계약금은 분양가의 10~20%를 내야 하지만 계약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춘 것이다. 아울러 올해 11월 22일부터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는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들어선다. 이 노선을 통해 1호선 환승역인 회룡역까지 10분 정도면 이동 가능하고 도보 3분 거리에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

어 서울 중심지로의 출퇴근도 편리하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단지 반경 1km 이내에 홈플러스 의정부점과 금오신곡동 중심상권이 있고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갖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경기 북부 최대 규모 의료기관인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이 가깝다.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이용이 편리하고 금오초, 금오중, 천보중, 효자중·고 등의 학교도 근방에 있다. 인근에 금오동 학원가가 형성돼 있고 천보산, 의정부소공원, 부용천 산책로 등의 녹지도 풍부하다.

단지는 남측향 위주 배치로 채광이 우수하고 통풍이 잘되는 판상형 구조(일부 가구 제외)를 적용한다. 입주민의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등의 스포츠시설이 조성되고 자녀를 위한 작은도서관, 독서실, 키즈플레이룸도 계획돼 있다. '스마트폰 키 시스템'과 '하이오티 스마트홈 서비스' 등의 첨단 주거시스템도 갖췄다.

포스코이앤씨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1호선·KTX·SRT 품은 광역 교통망 매력



포스코이앤씨가 충남 아산에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3블록에 위치하는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총 1214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105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타입별로는 △70㎡A 560가구 △70㎡B 154가구 △70㎡C 60가구 △84㎡A 188가구 △84㎡B 126가구 △84㎡C 126가구 등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1월 분양에서 평균 52.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단기간 완판까지 성공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4블록)'와 바로 인접해 있는 후속 분양 단지다.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는 약 53만 6900㎡ 부지에 4300여 가구 규모의 주거지가 조성된다. 녹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눈에 띄는 것은 광역 교통망이다. 지하철 1호선

탕정역 이용이 편리하며 인근 천안아산역의 KTX, SRT 등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로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순신대로와 당진~청주고속도로(아산~천안 구간 2023년 9월 개통)가 인접해 있다. 올해 1월 발표된 GTX-C 연장 구간 계획에 아산시가 포함되면서 미래가치도 기대해볼 수 있다.

환경도 우수하다.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탕정 8초교가 2027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도보 거리에 유치원과 중학교도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렛, 대형마트 등이 탕정역과 천안아산역 일대에 있고 산책하기 좋은 녹지 공간도 갖췄다. 탕정역 일대 학원 가도 이용 가능하다.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세대 내 양질의 공기를 공급하는 '항균 황토덕트'도 적용되며, 승강기 내부에는 미세한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하는 UV-C LED 살균 조명이 설치된다.

GS건설 여주역사이 헤리티지

여주 최대 주거단지... 2차 도시개발사업 앞뒤



GS건설은 다음 달 경기 여주시 교동 500-118번지 일대에 공급 예정인 '여주역사이 헤리티지'를 분양한다.

여주역사이 헤리티지는 지하 2층 지상 27층, 8개동 총 76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86%인 663가구다. 고급 수요층을 위한 펜트하우스도 2가구 있다.

여주역사이 헤리티지는 도보권에 있는 경강선 여주역을 통해 판교역까지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여주역은 2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에도 포함됐다.

이 단지 들어서는 세종도시개발사업지구는 약 5만 9000㎡ 규모로 조성 중이다. 현재 이곳에는 여주역세권과 교동·교동 2지구가 입주를 완료했다. 여주역사이 헤리티지를 포함하면 3872가구로 여주 최대 주거단지가 된다. 흥문 1·2지구와 교동 1지구까

지 합치면 약 6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3900여 가구가 들어설 2차 도시개발사업도 계획돼 있다. 이 부지 인근에는 여주행정복합타운(신청사)도 2025년 착공할 예정이다.

여주역사이 헤리티지는 교육여건도 좋다. 세종초·중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여주초가 여주역세권지구로 이전을 준비 중이다. 사업비 22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는 학교시설복합화사업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또 이마트와 신세계프리미엄 아울렛이 가깝고 반경 3km 이내에 여주버스터미널, 하이마트, 여주경찰서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자리 잡았다.

여주역사이 헤리티지는 채광과 통풍을 고려한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하고 4베이 이상 판상형 평면 구조로 공간감과 일조량을 극대화했다.

롯데건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GTX 작전역 교통 호재... 3053가구 대단지



롯데건설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일원에 들어서는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계양롯데캐슬 파크시티는 2개 단지, 총 3053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20개동, 전용면적 59~108㎡ 1964가구, 2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0개동, 전용 84㎡ 1089가구로 조성된다. 이번에 2단지 1089가구를 분양하고 이후 1단지 1964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계양구는 GTX 호재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GTX D·E노선에 포함됐으며, D노선은 서울 강남권역으로, E노선은 서울 상암동권역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단지 앞 봉오대로를 통해 청라국제도시 등 인천 시내 이동이 가능하며, 서인천IC, 부평IC를 통해 경인고속도로 이용도 용이하다. 단지 앞에는 BRT(간선급행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어

서울 강서구까지 이동이 편리하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는 효성서초, 명현초, 효성초, 북인천여중, 효성중, 효성고 등이 있고 효성도서관과 학원이 밀집해 있다. 또한 홈플러스, CGV,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한림병원, 계양구청 등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다양한 커뮤니티와 조경공간도 도입된다.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와 피트니스클럽, 필라테스룸, 실내골프클럽 등 운동시설이 마련되며, 미팅룸, 크리에이티브 라운지, 스트리밍 시네마, 뮤직룸 등의 공간도 조성된다.

청약 일정은 이달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5월 2일 2순위 순서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9일, 정당 계약은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일원에 마련됐다.

DL이앤씨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

사통팔달 교통망 갖춘 울산 첫 역세권 단지

<도시철도 노선>



울산 최초 도시철도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DL이앤씨가 분양 중인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이 역세권 수혜 단지로 주목 받고 있다.

울산시 사업 기본 계획에 따르면 도시철도 1호선은 태화강에서 공업탐로터리를 지나 신복교차로까지 총 11.05km 구간에 15개 정차역이 건설될 계획이다. 오는 2026년 착공해 2029년 운행할 예정으로, 3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단지는 울산에서 가장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옥동과 신정동 생활권에 들어선다. e편한세상 브랜드 단지로 들어서 주택 가치 상승이 기대되며, 공업탐역(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라는 장점을 갖췄다.

특히,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은 울산 첫 도시철도 노선의 역세권 단지로 향후 시장 회복 시 큰 폭의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또 도시철도 호재 외에도

교육과 교통, 행정, 편의, 여가 등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현재 남구와 그 일대에 약 17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울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고급 주거 단지를 형성 중이다.

학군도 우수하다.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에서 도보 약 2분 거리에 학부초 선호도가 높은 신정초가 있으며 이 외에도 도보 거리에 10여개 학교가 밀집해 있다. 옥동과 신정동에만 총 600여 개의 학원이 밀집해 있다. 또 대규모 공원과 태화강 등의 자연환경도 준수하며 울산 각지로 이어지는 도로 교통망도 우수하다.

한편, 이 단지는 울산 남구 신정동에 지하 6층~지상 35층, 2개 동, 전용면적 84㎡형 단일 면적 15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현재 선착순 지정 계약 중으로 1차 계약금 500만 원 정액제, 총 계약금 5% 등으로 초기 부담을 낮췄다. 견본주택은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탐로터리 인근에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 테라타워 세마역

제조형 중심 '지식산업센터' ... 안정성 특화 설계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에 조성되는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세마역'을 분양한다.

현대 테라타워 세마역은 지하 3층~지상 13층, 연면적 약 11만5000㎡ 규모로 제조형과 연구·업무형 지식산업센터 566실과 상업시설 46실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가 1200만 원대로 책정됐는데 사업지와 한 시간 거리인 서울디지털단지 지식산업센터들은 3000만 원대에 공급되고 있다.

특히 현대 테라타워 세마역이 들어서는 수도권 남부 제조형 중심의 지식산업센터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조형 중심 지식산업센터에 걸맞은 맞춤형 설계를 적용하고 편리한 교통환경도 갖췄다. 먼저 대형 출입문(지하 1층~지상 10층, 일부 제외)을 설치해 물류 이동과 효율성을 높였다.

드라이브인 시스템과 도어 투 도어 시스템(지하 2층~지상 11층, 일부 제외)을 도입해 차량 이동과

상·하차의 편리성을 확대했으며 약 7.5m의 램프폭과 회전공간이 적은 직선형 램프로 물류 차량 이동 편의성도 강화했다. 조업공간 인아웃이 편리한 하역장(지하 1층~지상 10층)도 조성했다.

또 물류 이동의 안정성을 높일 고하중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2.5톤 차량 출입은 물론이고 1㎡당 1.2톤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됐으며 5톤까지 물류 이동이 가능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지하 1층부터 지상 11층까지 하역을 할 수 있다.

인근에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개통되고 인덕원선이 2029년 개통 예정인 STR 동탄역도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반도체 고속도로' 호재가 기대된다.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에서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다.

대우건설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풍부한 개발 호재... 선착순 지정 계약 진행



대우건설이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일정에 돌입했다.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평택화양지구에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총 851가구 규모로 신축된다. 타입별 분양 가구는 △74㎡ 199가구 △84㎡ 644가구 △122㎡ A 8가구로 구성됐다.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서평택 지역에서도 중심지로 평가받는 화양지구에 들어서는 단지로, 특히 일대의 풍부한 개발 호재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평택역과 안중역을 연결하는 평택선이 공사 중이며, 화성 향남 부근에서 경부고속선과 직결 추진 중인 서해선복선전철 안중역도 올해 개통 예정이다. 여기에 올해 1월에는 GTX-C노선을 평택 및 아산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가구 내부는 복도 팬트리 및 알파룸 등으로 공

간 활용도를 높였다. 일부 가구는 선호도 높은 판상형 구조로 지어진다. 주차장은 주차유도 시스템, 주차관제 시스템 등을 적용해 편리성을 높였다.

또한 단지 외곽의 산책로를 비롯해 데마 놀이터, 독서실, 스타디움, 피트니스 클럽 등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으로 주거 만족도를 키웠다.

선착순 계약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395만 원이다. 1차 계약금은 기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췄으며, 전체 계약금도 10%에서 5%로 줄였다. 여기에 기존부터 제공됐던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도 유지되며 6개월 후 무제한 전매도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일원(홈플러스 평택안중점 인근)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6년 11월 예정이다.

한화 건설부문 도마 포레나해모로

첨단산업 수혜단지... 학군·생활 인프라 밀집



한화 건설부문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일원(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 이하 도마·변동지구)에서 HJ중공업과 공동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 '도마 포레나해모로'의 선착순 분양에 돌입했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 동 전용면적 39~101㎡ 총 81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68가구로 전용면적 타입별 △59㎡ A 209가구 △59㎡ B 111가구 △74㎡ A 65가구 △74㎡ B 92가구 △84㎡ 86가구 △101㎡ 5가구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도마·변동지구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8구역),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11구역) 등 2만5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브랜드 타운으로 변모 중이다.

여기에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대전 시 유성구 교촌동이 최종 선정되면서 주목도도 커

고 있다. 대전시는 이곳에 나노·반도체산업과 신성장 산업인 우주항공, 도심교통항공 등 연관산업을 유치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해당 예정지에서 7~8km 떨어진 도마 포레나해모로도 수혜단지로 꼽히고 있다.

단지는 계백로와 도마네거리, 대둔산로 등의 교통망을 갖췄고 호남고속도로와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의 진·출입도 가능하다. 대전서남부터미널과 KTX서대전역, 대전1호선 서대전네거리역도 인접해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도보권에 대신중·고교가 위치해 있다.

또한 상가와 병·의원, 은행 등 생활 인프라가 밀려 있는 도마네거리 중심상권(도보 5분)을 이용할 수 있고 도마근시장도 가깝다.

견본주택은 대전 서구 계백로1193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이다.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HD 현대마린솔루션

일반공모 안내

발행사 에이치디현대마린솔루션(주)

공모예정가 73,300원~83,400원

청약일 2024년 4월 25일(목)~26일(금)

환불일 2024년 4월 30일(화)

*기타사항

1) 본 공고는 향후 발행 예정인 증권의 공모를 위한 단순 광고이며,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발행 금액, 청약일·납입일 등 발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조건은 청약일 전에 확정될 예정이며, 투자 설명서, 예비 투자 설명서, 간이 투자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 보고서, 감사 보고서 등 정기 공시사항과 수시 공시사항 등이 전자 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여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1283호(2024년 4월 5일~2025년 4월 4일)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환율 변동>·<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 원금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 거래 시 수수료는 (영업점 계좌) HTS, 홈페이지 1천만 원 미만 0.1573%+1,000원/MTS, WTS 0.1973%(대표 수수료)이며, 계좌별,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증권) 일반청약자에게 복수배정 방식(균등 방식+비례 방식 등)이 적용되어 각 방식에 따른 배정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모증권) IPO 공모주식은 상장 초기 가격 변동성이 크며, 상장 후 주가가 공모 가격을 하회하여 투자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예비,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일반청약자 우대등급에 따라 지점 내방 청약 시 건당 4,000원, 온라인 청약 시 건당 1,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몽골서 대박 난 K푸드...“혹독한 현지 테스트가 비결”

이순호 BGF리테일 MD

출시 전 현지인 수백명 대상으로 다양한 먹거리...몽골 입맛 공략 편의점서 한끼, 합리적 가격 한몫 다음은 'K치킨'...상반기 중 출시

“몽골이 상대적으로 식문화가 발달하지 않고 길거리 음식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죠. 한국 음식을 비롯, 다양한 먹거리로 현지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순호 BGF리테일 HMR팀 MD는 24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몽골 내 편의점 CU 판매 제품 중 대다수는 한국 음식이 상위권을 차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7월 몽골로 파견 간 이 MD는 현지 CU 매장에 들어갈 상품의 구성·콘텐츠 기획부터 편의점 운영 노하우 컨설팅 업무 등까지 몽골 소비자 공략을 위해 매일 분주하다.

그는 “한국 예능과 드라마, 음악 등 K콘텐츠가 몽골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라면서 “K콘텐츠에서 접한 라면, 삼각김밥 등 한국 편의점 음식도 동반 인기”라고 전



CU 편의점으로 몽골 소비자 공략에 분주한 이순호 BGF리테일 HMR팀 MD. 사진제공 BGF리테일

했다. 이어 “업무나 유희차 방문했던 몽골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한국 음식을 찾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이 MD는 한국 음식에 반한 몽골 소비자 입맛을 더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이는데 집중했다. 그는 “식문화가 한국에 비해 덜 발달한 몽골 시장을 고려해 K푸드는 물론 다양한 세계 음식을 선보이기 위해 공들였다”면서 “햇바, 삼각김밥부터 최근 선보인 짜장면까지 선풍적인 인기”라고 했다. 특히 작년 12월 출시한 세계 면 요리 3종(한국식 짜장면, 라

멘, 까르보나라 파스타)은 출시 3개월 만에 합계 20만여 개, 하루평균 1700여 개 넘게 팔렸다. CU의 면 요리 3종은 현지 기호에 맞추기 보다는 한국·일본·이탈리아 음식 본연의 맛을 그대로 구현했다. 그 결과 짜장면은 8만여 개, 라멘은 6만 5000여 개, 까르보나라 파스타 5만여 개가 각각 판매됐다.

이 MD는 “한국에서 성공한 제품이 몽골에서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는 만큼, 현지 출시에 앞서 수백 명 현지인을 대상으로 혹독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고 했

다. 이들의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 성공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CU만의 ‘합리적인 가격’도 인기의 비결이다. 몽골에는 길거리 음식이 발달하지 않아, 대부분 직장인들은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한다. 가격도 비싼 편인데, 편의점에서 한화 3000~4000원 도시락 하나면 풍성한 한끼가 가능하다. 3월 말 출시한 CU의 PB(자체브랜드) 상품 ‘연세우유 크림빵’도 몽골에서 대박을 쳤다. 판매 3주 만에 1만 개 가까이 판매돼, 몽골 젊은 층 사이 인기만점이 대표 디저트가 됐다.

이 MD는 “작년 말부터 몽골에도 디지털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한국에서 히트 친 연세우유 크림빵을 들여왔다”며 “현재 점포마다 품귀 현상은 물론 몽골 내 10~30대 소비자 사이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인증샷이 화제”라고 전했다. 이 MD는 앞으로 K치킨을 새로 선보여 몽골인의 입맛을 잡겠다는 포부다. 그는 “몽골에서도 최근 치킨 가게가 우후죽순 늘고 있다”면서 “다만 제대로 된 곳이 없어, 저렴한 가격에 제일 맛있는 K치킨을 상반기 내 선보일 예정”이라고 했다.

문현호 기자 m2h@

포스코·해수부 등 민관 협력 포항 앞바다에 바다숲 만든다



왼쪽부터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시우 포스코 사장, 고동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환경연구소장. 사진제공 해양수산부

민·관 협력으로 바다숲 조성이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4일 바다숲 조성의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시우 포스코 사장,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주세돈 포항산업과학연구원장이 참석했다.

4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탄소 중립, 수산자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 건강한 바다생태계 보전 및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 해조류 등 바다숲 블루카본 국제인증 노력 등을 위해 협력한다. 또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기관별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포스코는 바다숲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4년간 포항 연안에 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투입한다. 포스코는 앞서 2007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2010년과 2014년 수산자원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수부와 협력을 다졌다.

이번 바다숲 조성의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해양 탄소흡수원인 바다숲 조성을 통해 정부와 민간, 공공이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데 디딤돌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HDC현산, 외국인 근로자 ‘감성안전 경진대회’

HDC현대산업개발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감성안전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경기 평택 고덕2차 아이파크 현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태영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 흥순의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장, 이광희 HDC현대산업개발 안전품질부문장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안전활동 참여와 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가 행사에 동참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총 103건의 편지를 접수했고, 서면 심사를 거쳐 5건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해 이날 경진대회 본선을 진행했다.

본선에 진출한 외국인 근로자 5명은 직접 편지를 낭독했고 이후 심사를 통해 최우수작을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가족 초청(4인 왕복 항공권·4박 5일 숙박권)과 근로 장학금 200만 원을 지급했고 최우수상에는 총상



HDC현대산업개발이 23일 개최한 외국인 근로자 감성안전 경진대회에서 수상자들이 행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HDC현대산업개발

금 100만 원, 우수상에는 총상금 50만 원 등 상금과 상품을 수여했다.

이날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한 김태영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소통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는 없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정서적인 교류와 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자율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흥국생명, ‘핑크박스’ 포장 봉사활동



흥국생명은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각종 학용품 등을 담은 ‘핑크박스’를 만드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핑크박스는 서울 마포구 소재 양육시설인 삼동보이스타운 아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재은 기자 dove@·사진제공 흥국생명

김재은 기자 dove@·사진제공 흥국생명



신한라이프, 베트남 법인 임직원 초청 ‘비즈니스 트립’

신한라이프생명은 베트남 법인 임직원들을 국내로 초청해 4박 5일 ‘비즈니스 트립’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신한라이프는 올해 초 대면 영업을 통해 베트남 시장 내 저변 확대와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베트남 법인의 전속 영업 조직인 ‘재정 컨설턴트(FC)채널’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행사는 모회사의 보험 전문성과 전

속채널 운영의 노하우를 베트남 법인에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베트남 현지 법인의 본사 임직원과 영업조직 관리자 등 7명을 대상으로 본사 투어, 영업점 교육 참관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으며, 18일 개최한 FC채널 영업대상 시상식에도 초청했다. 김재은 기자 dove@·사진제공 신한라이프생명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정보화담당관 최병국

◆한국거래소 ◇부사장 신규보임 △경영지원본부 홍보부장 이방순 △IT관리부장 장정희 △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상품시장부장 최철호 △디지털사업부장 안길현 △ESG지원부장 이연숙 △코스닥시장본부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지원실장 신영철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제도부장 정중섭 △파생상품시장부장 김흥주 △TR사업부장 김창환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연구실장 손승태 △시장감시본부 특별심리부장 황은선 △청산결제본부 장외청산결제부장 윤영기 △CCP리스크감시실장 정상현 △시장감시본부 사전예방부장 이성훈 ◇부사장 전보 △비서실장 최훈철 △경영

지원본부인사부장 이원국 △전략기획부장 김정영 △데이터사업부장 이길원 △IT전략부장 최재호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장 이원일 △공시부장 홍성찬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시장부장 최진영 △상장부장 박신 △기술기업상장부장 서아론 △공시부장 김성곤 △상장관리부장 최지우 △코넥스시장부장 안일찬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개발부장 기기동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제도부장 방흥기 △심리부장 이근영 △감리부장 안현수 △공매도특별감리부장 강병모 △청산결제본부 CCP리스크관리부장 김성곤 △감사위원회 감사부장 전진수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이사 성현규 ◆한국국토정보공사 ◇신규임명 △공간정보본부장 심병섭 ◆광교이텍스 △상무이사 박훈식

학자 출신으로 노태우 정부 실세...노재봉 前 국무총리 별세

노태우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노재봉 전 총리가 별세했다. 향년 88세.

24일 노 전 총리 지인 등에 따르면 노 전 총리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서울성모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노 전 총리는 1년 전부터 혈액암으로 투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총리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뉴욕대에서 1967년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1988년 노태우 정부 당시 대통령 정치 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1991년 1월 22대 국무총리에 취임했지만, 명지대 학생 강경대 씨가 시위 진압 중



목숨을 잃으면서 4개월 만인 같은 해 5월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다. 이후 14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민주자유당에서 당무위원과 고문으로 활동했다. 명지대 교양교수와 서울디지털대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지연월(88) 씨, 딸 모라(62) 씨, 아들 진(57) 씨가 있다. 노 전 총리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발인은 27일 오전이다.

장유진 기자 yxxj@

부음

▲이근열 씨 별세, 이도훈·송훈(육군대령)·태훈(은행연합회 전무이사) 씨 부친상 = 23일, 안양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 VIP 1호실, 발인 26일 오전 7시, 031-384-4634

▲이동철 씨 별세, 이윤기(현대해상다 이렉트영업본부장) 씨 부친상=23일, 삼육서울병원추모관 6호실, 발인 25일 오전 9시 30분, 02-2215-4444

▲윤교중(전 경찰공무원) 씨 별세, 김용정 씨 남편상, 윤석윤(전 커민스코리아 대표)·석민(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석훈(청주 윤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석중(재미·사업) 씨 부친상 = 24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0호실, 발인 26일 오전 7시, 031-787-1510

▲이건우(공주 이건우의원 원장) 씨 별세, 김순기 씨 남편상, 이석하(건국대 병원 정형외과 교수)·연하(공주 정보교 교장)·금하(KOTRA 기획조정실장) 씨 부친상, 공윤선(MBC 뉴스룸 외교안보팀 차장)·윤재 씨 외조부상 = 23일, 공주의료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6일 오전 8시, 041-962-1444

논현광장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

지난 19일 시작한 MBC 드라마 '수사반장 1958'에는 자막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자막이 송출된다. 옛날 '수사반장'을 기억하는 고령층 시청자들을 고려했지만 농민 시청자, 빠른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두루 유용하다. 해외 OTT인 넷플릭스에서는 진즉 글로벌 시청자나 장애인에게도 고려하여 모든 프로그램에 자막을 제공하고 있으니 한국 공중파가 오히려 늦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자막 제공은 일부 이용자 뿐 아니라 모든 이용자들에게 유익할 수 있어서 '모두를 위한 디자인', 즉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불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1974년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당사자이자 건축가인 로널드 메이스가 WHO(세계보건기구)에 제출한 '배리

자들과 화장실 이용을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하철에 휠체어, 유아차 이용자를 위해 좌석을 떼어놓은 '휠체어 구역'이 있다. 휠체어 이용자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도 기대어 설 수 있으니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그런데 여기 캐리어나 자전거를 세워두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승객들이 있다. 일부 열차 휠체어칸에는 아예 휠체어와 캐리어가 나란히 픽토그램으로 표기되어 승객들이 '캐리어 두는 다른데 가서 앉아도 되나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례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했지만 최초 설계 또는 디자인을 알리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사례다. 화장실의 경우 영유아 동반층까지 고려한다면 아예 새로운 화장실을 만들어야 한다. 백번 양보해 기존 화장실을 개조하

진정한 유니버설 디자인

어프리디자인 보고서'에서 처음 소개한 후 건축뿐 아니라 다양한 제품, 서비스 등으로 확대된 개념이다. 다리가 불편한 사람뿐 아니라 누구나 타서 수직 이동을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타이핑이 불편한 사람이 음성으로 문자 전송이 가능한 스마트폰 기능도 모두 유니버설 디자인의 범주에 속한다. 그런데 이를 적용할 때 문제점이 불거지는 경우가 있다.

몇 년 전 유니버설디자인 바람을 타고 '다목적 화장실'이 유행처럼 설치됐다. '가족화장실' 등의 이름으로 영유아 동반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만들자는 취지는 좋다. 그런데 이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문제점이 대두됐다. 기존 장애인 화장실을 개조해 가족화장실을 만드는 곳이 많았던 것이다. 가뜰이나 화장실 숫자가 적어밖에 목말라도 물도 안 마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에게는 난감한 일이었다. 휠체어가 들어가려면 넓은 공간이 필수적이라 다른 화장실을 이용 못하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영유아 동반

더라도 개조 후 휠체어 이용자들이 불편해진다면 유니버설 디자인 취지에서 벗어난다.

기업이나 단체의 공간 기획자들에게 부탁드린다. 애초에 서비스 소비자를 위한 공간 디자인을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바꾸어야 한다면 서비스 사용자끼리의 분쟁이나 오해가 없도록 섬세하게 기획해야 한다. 독자들에게도 당부드린다. 엘리베이터에서는 엘리베이터 외 다른 이동수단이 없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타야 한다. 휠체어나 유아차에게 양보해 주길 바란다.

지하철 휠체어칸은 비워놔야 한다. 거기에 캐리어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캐리어를 거치해 놓고 다른 곳에 버리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가족화장실만 있고 장애인화장실은 없는 공공기관을 보게 됐다면 '안전신문고' 같은 신고 어플로 "화장실이 더 필요하다"고 신고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모든 시민이 진정한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에 참여할 수 있다.

젊고 예뻐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 늙고 병들 때도 있는데, 지금 늙고 병들었다 하여 옛날 젊어 함께 고생하던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시사상식 / 피크코리아(Peak Korea)
한국 경제 성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의 경제는 1960년대부터 빠르게 성장해왔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외환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후 2000년대에는 다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 피크코리아의 원인으로는 인구 고령화, 산업 구조 변화, 글로벌 경제 위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기존의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한국의 경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⑨ 문화예술계 최대 네트워킹장 '아트페어'

최신 미술트렌드 선보이는 마켓
예술 통한 도시경제 활성화 상징

예술산업에서 이제는 놓칠 수 없는 주요 거래의장이 된 아트페어는 시공간을 초월한 전방위적 예술 창작물을 한 공간에 모이게 하는데, 이 힘으로 전 세계 예술애호가들의 두툼한 지갑을 열게 한다. 다양한 장르에서 국제적 명성의 갤러리들과 함께 유명세가 높은 저명한 작가들, 특독 튀는 신진 작가들의 기발한 아이디어 작품들이 즐비한 문화예술계의 거대한 네트워킹 장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세기를 아우르는 전 장르의 작품을 근거리에서 자유롭게 관람할 뿐 아니라, 갤러리스트, 큐레이터, 그리고 딜러들의 협상을 가까이서 바라보는 재미난 기회이기도 하다.

세기의 작품 가까이서 감상 기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아트페어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존 아트페어도 혁신을 거듭해야 했다. 그 전에는 다소 아카데믹하고 박물관적이던 아트페어들이 어느덧 신생 갤러리와 청년작가들도 환영하면서 자국뿐 아니라 해외 유수의 갤러리들을 대거 받아들이며서 자국적인 색안 고집하지 않고 자체적인 수준을 국제적인 급으로 새롭게 탈바꿈하였다.

2024년도 미술시장 트렌드를 크게 살펴보면 미술계에서의 디지털화는 미디어아트나, NFT아트 가 더 이상 낯설지 않게끔 작년에 이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 곳곳의 아트페어에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아트페어로는 첫 번째로 영국의 프리즈(Frieze)가 있다. 런던에서 태동해서 로스앤젤레스(LA), 뉴욕에서 서울까지 진행되는 프리즈는 그 중에서도 마스터즈(Frieze Masters)라는 섹션이 관람객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곳은 2000년 이전에 제작된 작품 또는 1950년 이전에 태어난 작가의 2010년 이전 제작 작품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특별 기획 구간인데 예술애호가들이 꼭 들러가는 섹션으로 자리매김에 성공했다. 런던 프리즈의 경우 리젠트파크가든(Regent's Park Gardens)에서 조각전시도 개최하여 드넓은 야외에서 다양한 재미를 선사한다.

두 번째 국제적 아트페어로는 스위스 바젤에서부터 파리와 마이애미를 거쳐 홍콩까지 영역을 확장한 아트바젤이다. 이 아트페어는 '젊은 갤러리' 섹션을 통한 신진작가들의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하며 미래의 예술인재들에게 시장 진입으로의 안정적인 발판을 놓아주고 있다. 특히나 우리에게 홍콩아트바젤 기간에 국내 셀럽들



지난해 9월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아트페어 '프리즈서울'에 몰린 관람객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9월 열릴 KIAF-프리즈 서울 아트페어를 통해 서울을 아시아 대표 미술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사진출처 프리즈서울 홈페이지

이대거 홍콩으로 이동하는 공방 입출국 뉴스를 통해 다소 친숙한 국제적 규모의 아트페어다. 홍콩에서는 바젤의 국제적 명성에 걸맞는 미술계 거장들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내로라하는 예술가들을 다양하게 만나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파리에서 개최되는 아트바젤은 '플러스아트바젤(+by Art Basel)'이란 명칭으로 파리 외곽에 위치한 그랑팔레 에페메르(Grand Palais Ephemere)에서 개최되는데 이 지역이 이제는 예술프로젝트 특화 사이트로 자리매김하면서 2022년부터 FIAC의 대항마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세 번째는 골동품 및 디자인 아트페어 특화된 테파프(TEFAF)이다. 다

영 프리즈·스위스 아트바젤 등 선두
딜러들 협상 지켜보는 재미는 덤
'대한민국 미술축제' 대표 브랜드화

양한 국적의 아트딜러들이 7000년 이상의 미술사를 소개하는 마스트리흐트부터, 무기고에서 아트페어를 개최하는 뉴욕까지 전 세계 갤러리들이 참석하고 회화와 조각 같은 통상적 예술작품 및 희귀한 골동품 판매 외에도 다양한 미술 주제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다.

회랑미술제 등 국내행사도 주목

또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출범하여, 현재는 런던, 뉴욕, 홍콩까지 광범위하게 영역대를 넓히고 있는 어포더블 아트페어와 더불어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프랑스의 아트파리, 스페인 마드리드의 아르코(ARCO Madrid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Fair), 영국 런던아트페어, 벨기에의 아트브뤼셀, 프랑스의 파리포도 등도 예술 전문가, 수집가 또는 예술애호가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국내도 만만치 않은 아트페어 라인업이 줄 서 있다. 매년 우리나라 아트페어의 시작을 알리는, 최초이자 최장수 아트페어인 회랑미술제, 8월에 개최하던 시기를 4월로 앞당긴 브리

즈아트페어, 매년 개최 때마다 작품 판매 기록을 갱신하며 고공행진 중인 부산아트페어, 조각과 유리 및 미디어아트 등 설치작품과 비구상작품에 집중한 조형아트페어, 올해 3회째로 젊은 아트페어인 울산국제아트페어와 제주, 서울에서 선보이는 아트페스타 등 모두 국내외 큰손 예술애호가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미술행사를 관광콘텐츠화 육성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올해 가을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개최한다고 4월 22일 발표했다.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와 손을 잡고 오는 9월 다양한 미술행사를 유기적으로 잇고 통합 홍보해 전국을 다채로운 미술축제로 꾸며 국내 대표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공공과 민간에서 각각 따로 운영하던 미술행사를 통합 홍보하고 전시 관람 할인 혜택뿐 아니라 각종 전시와 행사의 내용 및 일정을 연계해서 우리나라 대표 미술행사이자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 기간 동안 국내 최대 아트페어인 프리즈와 키아프가 서울에서 동시에 열리고, 국립현대미술관도 이 기간에 전시를 개최한다. 또한 대형 미술관과 갤러리들도 수준 높은 전시를 통해 도시가 세계적인 미술 애호가들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주는 공간이 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미술 입장권과 연계한 고속철도 관광상품도 판매하고 관광코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발표하는 등 케이컬처(K-culture)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시킨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트페어를 국가 브랜드 미술행사로 함께 육성해서 관광콘텐츠화하는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방향성은 예술을 통한 도시경제 활성화의 맥락에서도 반가운 대목이다. 국제적인 아트페어 행사 기간에 입국하는 큰손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 체류가 경기침체로 힘든 국내 관광산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백남준포럼 대표 유럽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 소장

이투데이, 밀투데이

☆ 카를 크라우스 명언
"약한 사람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심하고 강한 사람은 결정을 내린 후 의심한다."
잡지 '헛발'을 발행한 오스트리아 작가. 보헤미아 출생의 유대인인 그는 뛰어난 기지와 통렬한 풍자로 모든 영역의 부패와 타락상을 비판해 언어의 순수성을 보전하고자 하였다. 대표작은 아포리즘집 '선언과 반론', 평론집 '만리장성', 희곡 '인류 최후의 나날' 등이 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874-1936.

☆ 고사성어 / 봉비불유
무는 본디 뿌리와 잎을 다 먹는데, 뿌리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잎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 출전 시경(詩經) 패풍. "순무와 무는 두 가지 다 잎도 뿌리도 먹을 만한 채소인데, 그 뿌리는 때에 따라 맛이 있을 때가 있고 맛이 없을 때도 있다. 따라서 그 채소를 캐는 사람은 꼭 그 뿌리만을 보고 캐서는 안 되듯이 인간 부부 사이도 얼굴이

정책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여·야 간에 역대급 의석수 격차를 만들어 낸 이번 선거 결과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은 커녕 도리어 표를 깎아 먹은 것도 그렇고, 온갖 불법, 막말, 욕설 등으로 도덕적으로 큰 결함을 지닌 야당이 높은 지지를 받는 상식을 뛰어넘는 결과 역시 원인이 분석이 필요할 듯하다.

일반적으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정당 요인' '후보자 요인' '정책 요인'이 있다. 당연히 정책선후에 따라 투표하는 정책 투표가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정책 투표는 정당이나 후보 간에 정책 입장에서 차이가 있어야 하고, 유권자들도 합리적 판단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정책보다 정당이나 후보자 개인 요인이 선거를 지배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번 선거 역시 정책이 실종된 것은 예전과 거의 큰 차이가 없었다.

솔직히 기억나는 정책 공약이 거의 없는 게 사실이다. 굳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의 "국민 모두에게 25만 원씩 주겠다"는 것 정도

다. 이 역시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냥 돈 풀어서 표 받아보겠다는 포퓰리즘 성격의 선심성 공약에 가깝다.

대신 이번 선거를 지배한 것은 야당의 '검찰독재 타도'와 '정권 심판', 여당의 '안정 의석 확보' '범죄 집단 응징' 같은 정치 구호들이었다. 여·야 모두 현실적인 정책 공약은 없고 그냥 우리 당에 의석을 몰아달라는 읍소 캠페인에만 몰두했다. 도리어 선거 중·후반에 터져 나온 야당 일부 후보들의 막말과 욕설, 부동산 투기와 불법 대출 같은 이슈들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실제 선거 결과는 논란이 되었던 후보대수가 여유있게 당선되어,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쩌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정당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 직전 급조된, 그것도 각종 범죄 혐의로 재

황근의 시선

선문대 교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판을 받고 있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이 주도한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킨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생각되었던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이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은 정당 혹은 후보자 측면과 유권자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의 정당들은 여전히 이념과 정책을 축으로 하는 결사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연히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능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 정책 공약이

특표에 별 효과가 없다고 인식되어, 공약이 형식적인 퍼포먼스처럼 되어 버린 것도 원인이다.

반면에 유권자들

에게 오랜 경험에서 형성된 정책 공약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일 뿐'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당 정책과 유권자 간의 간격을 연결하는 장치가 바로 언론 매체다. 선거 기간 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정책토론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법정 토론이나 정당 연설은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정보적 가치도 낮고 무엇보다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토론 프로그램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정책비교나 정책관련 토론 프로그램들은 거의 실종되어 버렸다. 심지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매체들도 마찬가지였다. 정치가 후진적이라고 비판하기 전에, 공적 커뮤니케이션 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언론사들부터 성찰이 필요한 이유다.

'25만원' 공약 선심성 돈풀기 불과 정책실종 자리에 정치구호만 난무 정당·유권자 잇는 언론역할 강화

다. 이 역시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냥 돈 풀어서 표 받아보겠다는 포퓰리즘 성격의 선심성 공약에 가깝다.

대신 이번 선거를 지배한 것은 야당의 '검찰독재 타도'와 '정권 심판', 여당의 '안정 의석 확보' '범죄 집단 응징' 같은 정치 구호들이었다. 여·야 모두 현실적인 정책 공약은 없고 그냥 우리 당에 의석을 몰아달라는 읍소 캠페인에만 몰두했다. 도리어 선거 중·후반에 터져 나온 야당 일부 후보들의 막말과 욕설, 부동산 투기와 불법 대출 같은 이슈들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실제 선거 결과는 논란이 되었던 후보대수가 여유있게 당선되어,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쩌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정당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 직전 급조된, 그것도 각종 범죄 혐의로 재

노트북 너머

정수천
중소중견부 기자



선장이 없는 배가 제대로 된 항해를 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수장이 오면 방향성이 바뀌고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에 조직 불안정성은 점차 커질 가능성이 크다. 총선에서 낙마한 정치권 인물에 대한 보은 인사 우려도 크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능력 없는 사령탑이 조직의 발전을 저해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당장 올해 열린 아시안컵에서도 축구 대표팀 감독 지도력의 부재로 전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고금리·고유가·고환율·고물가와 내수 침체 등으로 중소기업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투자 한파를 겪은 벤처 업계는 재도약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기 정책을 뒷받침할 산하기관의 공백이 핵심 역량을 갖춘 인물로 빠르게 채워지기를 기대한다.

int1000@

사설

상속세 줄면 "지방 간다"는 기업이 줄을 섰는데...

기업상속공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지방에 신규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줄을 섰다고 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어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제가 바뀌면 지방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답변이 116개 대상 기업 중 61.2%에 달했다. 또 이 중 62%는 상속세감면 혜택이 추가될 경우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길 수 있다고 답했다. 상속세제만 손봐도 중견기업 100곳중 약 36곳을 지방에 유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견기업은 제조업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이다. 자산 총액 범위는 5000억~10조 원이다. 이런 규모의 기업들이 줄지어 지방으로 향하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묘방이 될 수 있다. 지방 재정난 대처도 한결 쉬워진다. 적어도 '87 헌정체제' 이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심하지 않은 정부는 전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멸 위기의 지역이 널려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는 다각도 방안을 모색했으나 백약이 무효다. 윤석열 정부도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여러 비전과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별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아까운 시간을 더 낭비해서는 안 된다. 연합회 설문조사가 가리키는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

전국 지역 중에서도 농어촌은 특히 심각하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농가 수는 농업 조사가 시작된 1948년 이후 처음 100만 가구를 밑돌았다. 지난해 농가 수는 99만9000가구로 전년도 102만3000가구보다 2.3% 감소했다. 농가 인구도 지난

해 208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농가 인구가 곧 200만 명을 하회한다는 점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보더라도 과중하고 불합리한 상속세 부담이란 과제를 안고 있는 국내 기업에 실질적 유인을 제시할 경우 기업은 자발적으로 지역을 살리고 자기도 사는 선택을 하게 마련이다. 앞서 2월 강원연구원도 국회 포럼에서 기업 상속세를 폐지하면 30개의 중견기업이나 613개의 중소기업이 새로 유입될 것이라고 했다. 민간투자는 1675억 원 증가하고 지역 내 총생산이 4조2914억 원이 늘어날 것이라 분석도 내놓았다.

지역균형 문제를 떠나 세제 자체만 따져봐도 상속세제는 큰 문제다. 우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다. 최고세율은 1997년 45%에서 2000년 50%로 올랐다. 단순 세율로는 일본(55%)에 이어 세계 2위지만, 실제로는 할증을 더해 60%로 세계 최악이다. 기업이 주가 상승을 반길 이유가 없다. 자본시장의 구조적 결함이고, 피해는 결국 투자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우리 상속세가 20년 넘게 꺾이지 않는 사이에 주요 경쟁국들은 폐지하거나 인하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스웨덴 등이 두루 그렇다. 국내 상속세는 더 이상 부유층만의 얘기가 아니다. 2022년 기준 과세 인원이 2000년보다 11배 증가했다고 한다. 약탈적 세제의 피해 권역이 급속히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도 살고, 지역도 살 수 있는 새 길을 찾아야 한다.

특허, 특!

美서 '강제매각' 틱톡의 운명

미국 하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3월 13일에 틱톡(TicTok)에 대한 금지법안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PAFACA)을 통과시켰다.

이후 이 법안은 한 차례 수정을 거쳐 이달 20일 하원에 이어 23일 상원에서도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를 통해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발의되었다.

자유시장 본산서 '사기업 강제매각' 논란

틱톡은 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제공을 플랫폼으로, 미국 인구 절반에 이르는 1억 70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10~2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이러한 폭발적 인기로 힘입어 세계 최초로 기업가치 100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인 헥토포(Hectotorn)이 되었다.

통과된 틱톡 금지법안에 의하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최장 360일 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없게 된다. 팬데믹을 겪으며 '자국중심 경제학(Homeland Economics)', 즉 자유시장에 기초한 세계화 대신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제질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요즘이지만, 신자유주의의 선봉인 미국에서 사기업에 대한 '강제매각'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에 가입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됐다.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 켈버시티에 있는 틱톡 사무실 외관. AP연합뉴스

법제아래에서 바이트댄스는 정부 요구를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 통과 가능성, 수정 헌법 1조에 대한 위헌 여부 등 틱

톡 금지법안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조차 틱톡으로 선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라 틱톡의 앞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내 특허 1600건, 특허보호 여부 주목돼

변리사인 필자에게 있어서 틱톡에 대해 주시하고 있는 이슈가 바로 매각의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바이트댄스의 '특허'에 관한 것이다. 특허 검색엔진 키워드의 검색 결과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출원인이 'bytedance'인 특허가 미국 특허 1600여 건을 포함하여 1만 3000건을 훌쩍 넘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미진 알고리즘'이라 일컬어지는 '틱톡'답게 관련 특허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강한 특허(pro-patent) 전략으로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른 미국이 과연, 바이트댄스에 대한 강제매각을 진행한다 해도 특허 또한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하도록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김세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석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대표전화 (02)799-2600

홈페이지 www.etoday.co.kr
팩스 (02)784-1003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시에는 바라는 게 있나요?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해주면 좋겠네!"

Q. 더 건강해지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죠?

A. 그렇제! 하고 싶은 일 더 맘껏 하려고

성수동 '요가쌤'
64세 최영아 님

LG의 시와 바이오 기술이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미래,
같이

